

# 보험동향

- | 총괄 김세중 (연구위원)
- | 경영환경 김윤진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 | 보험동향 최 원 (수석연구원)  
김혜란 (연구원)  
김유미 (연구원)



100<sub>호</sub>

[ 2021 겨울호 ]



## 보험동향 100호 발간 기념사

1997년부터 발간되어 온 『보험동향』이 25년간의 긴 여정 끝에 100호 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보험동향』은 1997년 7월 보험연구원의 전신인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소가 설립되면서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보험동향』이 발간되어온 25년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확산 등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보험동향』은 보험산업이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성장해 왔는지를 기록해온 하나의 역사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동향』은 다양한 환경 변화와 함께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화해 왔습니다. 현재에도 보험산업은 새로운 회계기준과 지급여력제도 도입이라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고, 『보험동향』도 이에 맞게 대대적인 변신을 준비 중입니다.

앞으로도 『보험동향』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보험산업의 지나온 길과 앞으로 나아갈 길을 비추어주는 등대 역할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꾸준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보험연구원 원장    안   철   경



## 목 차

I. 경영환경	
1. 경제	2
2. 금융	9
3. 자금흐름	13
4. 규제·제도	15
II. 보험동향	
1. 성장성	19
2. 수익성	42
3. 리스크	51
4. 시장경쟁	54



# I

## 경영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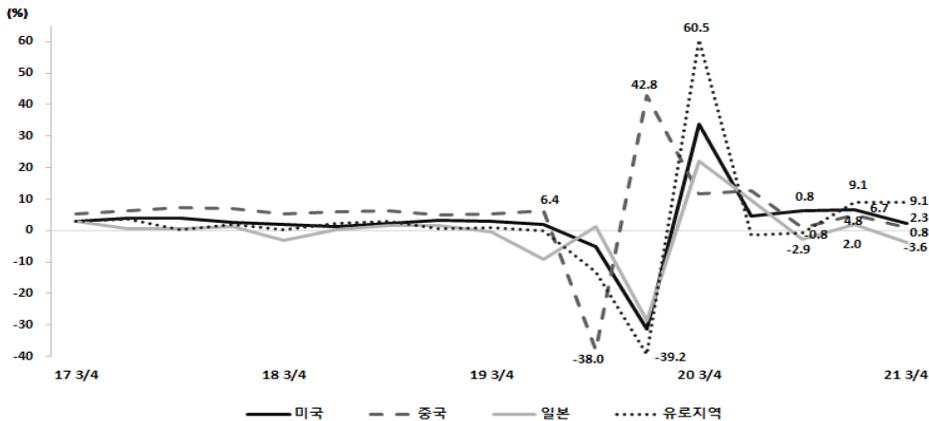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대비 성장세가 완만하게 나타남
  - 2021년 3/4분기 세계 무역과 산업생산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크게 둔화되었고, 경기선행지수는 전분기보다 소폭 상승하였음
- 2021년 3/4분기 국내경제는 대부분의 경제 지표가 둔화되었으나, 9월 이후 대면 서비스업 중심의 민간소비 확대로 2021년 연간 4.0% 수준의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 2021년 3/4분기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폭이 전기 대비 축소되었고, 수출입 증가율도 2/4분기 큰 폭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후 3/4분기에 하락세로 전환됨
  - 한국은행과 해외 주요 투자은행들은 2021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각각 4.0%, 3.9%로 전망함
- 한국은행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공급 차질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였으나 미국과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재개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25%로 인상함
  - 고용상황 및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기준금리 인상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조정하고자 함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12%, 2.51%로 상승하였으며, 장단기 스프레드는 인플레이션 우려 및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도 지속 등의 영향으로 축소됨
- 2021년 3/4분기 가계부문의 현금 및 예금, 채권 거래금액은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과 국내외 주식 거래금액이 전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1년 3/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4.5%로 2/4분기 소폭 상승한 이후 다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 수준에 머물러 있음

# 1. 경제

## 가. 세계경제

- 2021년 3/4분기 세계경제는 코로나19 델타변이 확산과 글로벌 공급 병목현상 등의 영향으로 2/4분기 대비 성장세가 완만하게 나타남
  - 미국 GDP는 민간 소비지출 감소와 코로나19 관련 정부지출 축소 영향 등이 반영되며 전분기보다 4.4%p 낮은 2.3%를 기록함<sup>1)</sup>
  - 중국 경제는 2021년 3/4분기 전력난으로 인한 생산 감소와恒大그룹 관련 리스크 지속 등으로 전분기 대비 4.0%p 하락한 0.8% 성장에 그침<sup>2)</sup>
  - 일본 경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민간 소비지출이 큰 폭 감소하면서 3/4분기 G7 국가 중 유일하게 역성장(-3.6%)함<sup>3)</sup>
  - 유로지역은 2/4분기보다 정부지출과 수출 증가폭은 감소하였으나, 가계 소비지출 규모 증가로<sup>4)</sup> 전분기 수준의 9.1% 성장을 유지함

〈그림 1〉 주요국 경제성장률



주: 연율화된 전분기 대비 증가율, 계절조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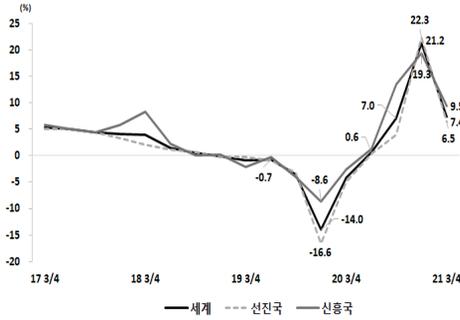
자료: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1. 12); 중국 국가통계국(2021. 10); 일본 내각부(2021. 12); Eurostat(2022. 1)

- 1) Bureau of Economic Analysis(2021. 12), "Gross Domestic Product (Third Estimate), Corporate Profits (Revised Estimate), and GDP by Industry, Third Quarter 2021"
- 2) CNBC(2021. 10), "China GDP disappoints, third-quarter growth slows to 4.9%"
- 3) Nikkei Asia(2021. 12), "Japan GDP growth in April-June upgraded to annualized 1.9%"; OECD News Release(2012. 11), "OECD GDP slows in third quarter but regains pre-pandemic level"
- 4) Eurostat(2021. 12), "GDP main aggregates and employment estimates for the third quarter of 2021"

○ 2021년 3/4분기 세계 무역규모와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4%, 6.5% 증가하였으나 전 분기에 비해 증가폭이 크게 감소함

- 선진국과 신흥국의 무역규모 증가율은 각각 6.5%, 9.5%였으며, 선진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하였고, 신흥국 산업생산은 전년 동기 대비 6.8%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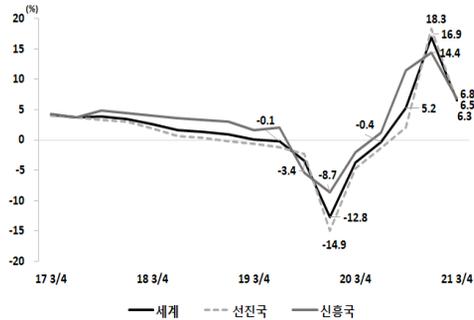
〈그림 2〉 세계 무역규모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1. 11)

〈그림 3〉 세계 산업생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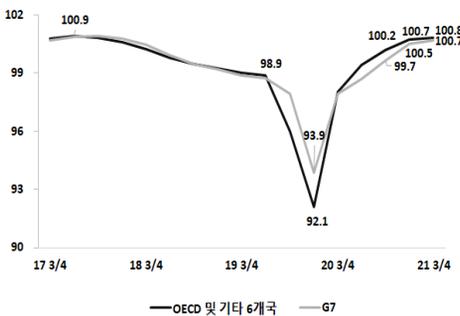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임

자료: CPB Netherlands Bureau for Economic Policy Analysis(2021. 11)

○ 2021년 3/4분기 세계 경기선행지수<sup>5)</sup>는 100.8로 5분기 연속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나, 주요국 경기선행지수는 국가별로 상이한 흐름을 보임

- G7의 경기선행지수는 100.7로 전분기보다 0.2p 상승하였고, 미국은 전분기와 동일한 100.3, 중국은 0.4p 하락한 100.8, 일본과 유로지역은 전분기보다 각각 0.1p, 0.5p 상승한 100.9, 101.1을 기록함

〈그림 4〉 세계 경기선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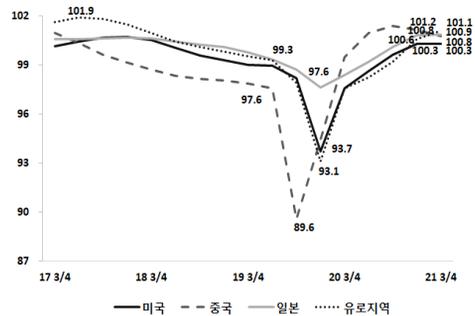


주: 1)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2) 기타 6개국은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임

자료: OECD

〈그림 5〉 주요국 경기선행지수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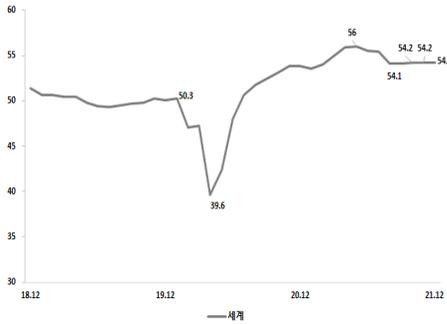
자료: OECD

5) 경기흐름을 가늠하는 지표로, 100을 기준으로 지수가 올라가면 경기 상승, 내려가면 경기 하강을 의미함

○ 글로벌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sup>6)</sup>는 2021년 7월 최고치인 56.0에 도달 후 54.1~54.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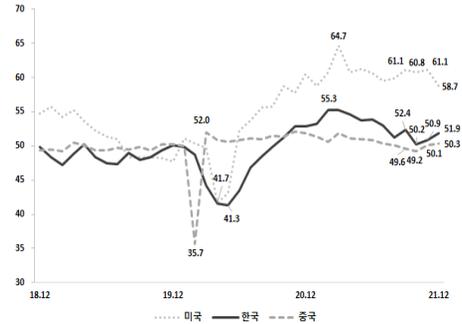
- 2021년 12월 미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PMI)는 58.7로 수개월 지속된 60선 수준을 하회하였고, 한국과 중국 제조업 구매자관리지수는 소폭 상승하여 각각 51.9, 50.3을 기록함

〈그림 6〉 세계 제조업 PMI 추이



자료: Bloomberg

〈그림 7〉 주요국 제조업 PM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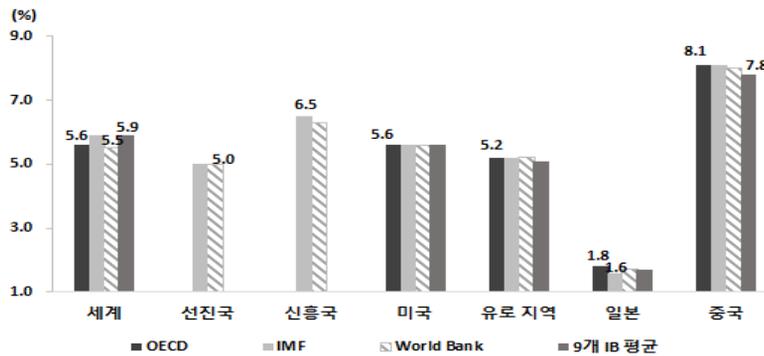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 주요 기관들은 코로나19 재확산, 각국 정책지원 축소,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요인을 반영하여 2021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함

- World Bank와 OECD는 선진국과 신흥국 간 경제회복 수준 격차로 인해 전체적인 세계 경제 회복이 지연될 가능성을 시사함<sup>7)</sup>

〈그림 8〉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



주: 9개 IB: Barclays, BoA-ML, Citi, BnP Paribas, Goldman Sachs, J.P. Morgan, Nomura, Societe Generale, UBS  
 자료: IMF(2022. 1); OECD(2021. 12); World Bank(2022. 1); 9개 IB 평균(2021. 12)

6) PMI(Purchasing Managers' Index)는 생산, 신규주문, 수출주문, 취업, 부품구매, 주문잔고, 납품업체 배송, 재고 등 11개 항목으로 구성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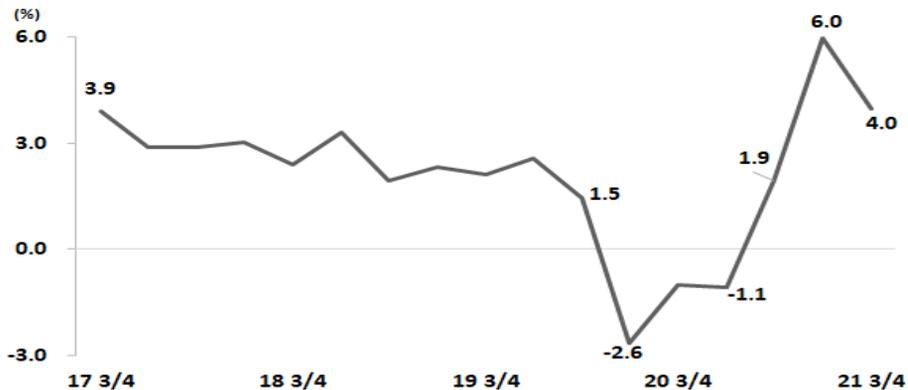
7) OECD(2021. 12),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1 Issue 2*

## 나. 국내경제

○ 2021년 3/4분기 국내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4.0% 성장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둔화됨

- 민간소비는 전년 동기 대비 3.2% 확대되었으나, 2/4분기에 비해 증가폭은 감소함
  - 소매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함
  - 소비자심리지수는 전분기 대비 2.7p 하락한 103.2로, 지난 1년간 이어진 상승세가 하락세로 전환됨
- 설비투자, 지식생산물투자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였으나 전분기보다 증가폭이 축소되었고, 건설투자는 부진이 지속됨<sup>8)</sup>
  - 설비투자는 특수산업용 기계(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와 운송장비 투자 중심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 늘어났고, 지식생산물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3.9% 증가한 반면, 건설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 5분기 연속 감소함
  - 기계수주는 민간과 공공에서 수주가 모두 늘어 전년 동기 대비 34.7% 증가율을 보였고, 건설수주는 8월 증가했으나 7월과 9월 모두 줄어 3/4분기 종합 1.1% 증가에 그침
- 수출입 증가율은 2/4분기 큰 폭 상승하여 역대 최고치를 기록 후 3/4분기에 하락하였고, 수출과 수입 각각 7.2%, 6.6%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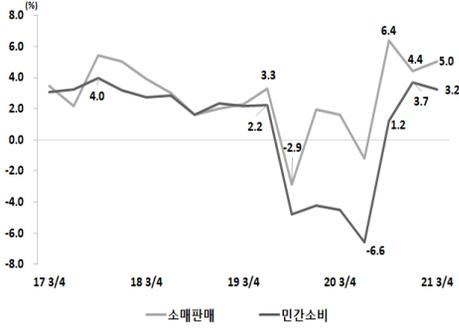
〈그림 9〉 국내 경제성장률



주: 원계열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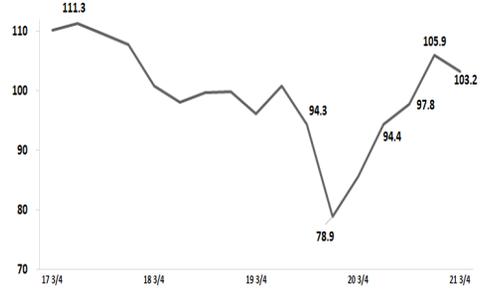
8) 통계청 보도자료(2021. 8), “2021년 7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9), “2021년 8월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보도자료(2021. 10), “2021년 9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10〉 민간소비와 소매판매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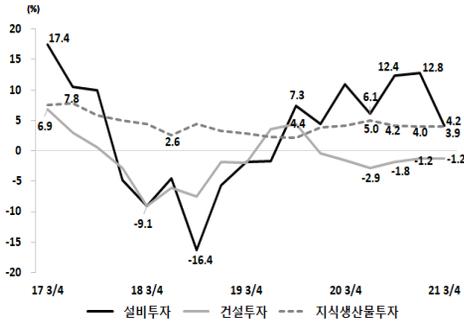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그림 11〉 소비자심리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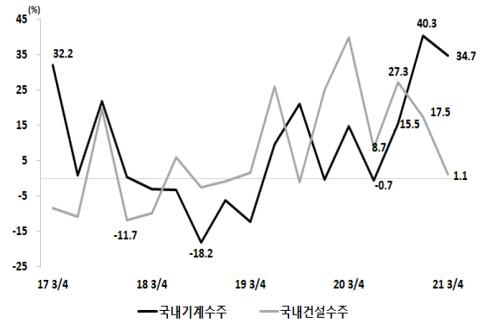
주: 월간자료를 3개월 단순평균하여 산출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12〉 설비투자, 건설투자, 지식생산물투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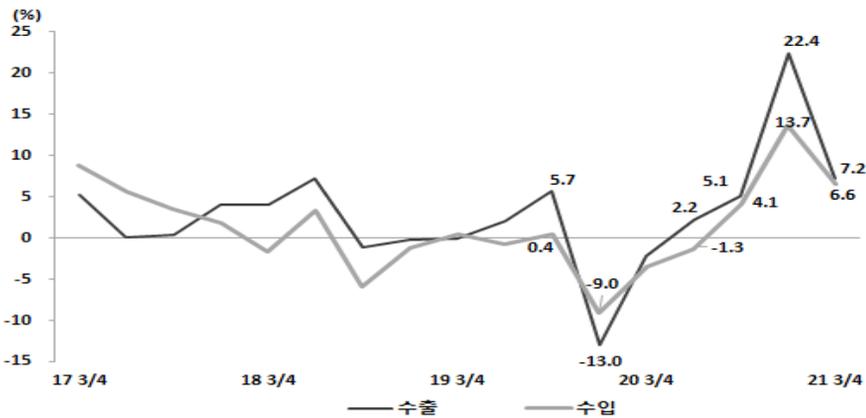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그림 13〉 기계수주, 건설수주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그림 14〉 수출입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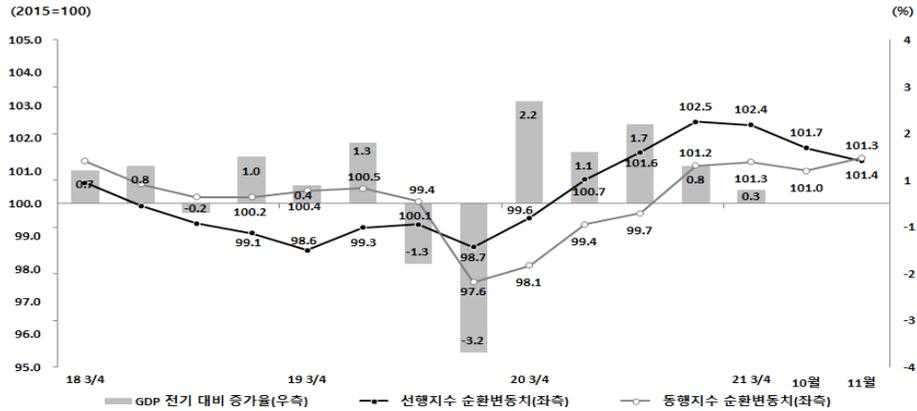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3/4분기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하락한 102.4,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1p 상승한 101.3을 기록함

- 2021년 11월 경기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2021년 2/4분기부터 점차 하락하여 101.3을 기록하였고, 2021년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101.4)는 2018년 3/4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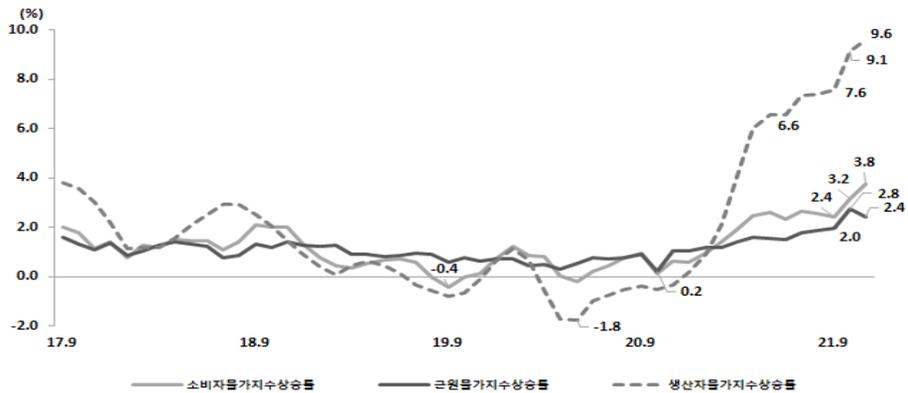
〈그림 15〉 GDP 증가율과 순환변동치



주: 2021년 10월과 11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잠정치임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 2021년 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8%로 9월 2.4% 대비 크게 높아졌고, 2021년 3/4분기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에는 개인서비스와 석유류 가격 상승 등이 영향을 미침<sup>9)</sup>

〈그림 16〉 물가상승률



주: 1)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임  
 2) 근원물가상승률은 농산물 및 석유류를 제외한 물가지수 상승률임  
 자료: 한국은행

9) 기획재정부(2021. 10; 2021. 11), 「최근경제동향」

○ 국내외 주요 기관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와 방역 방침 전환을 바탕으로 한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 회복세 강화를 예상함

- 한국은행과 KDI는 3/4분기 국내경제 성장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9월 이후 대면 서비스업 주도의 민간 소비 확대가 경기 회복을 견인할 것이라 예상하여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함
- 주요 해외투자은행<sup>10)</sup>은 2021년 국내 경제성장률을 최저 3.8%(Citi)에서 최고 4.1%(BoA-ML), 평균 3.9%로 전망함

〈표 1〉 국내 주요 기관 전망

(단위: %, 억 달러)

구분	2019	2020	2021(F) <sup>1)</sup>		2022(F) <sup>1)</sup>	
			한국은행 <sup>2)</sup>	KDI <sup>3)</sup>	한국은행 <sup>2)</sup>	KDI <sup>3)</sup>
실질 GDP	2.0	-0.9	4.0	4.0	3.0	3.0
민간소비	1.7	-5.0	3.5	3.5	3.6	3.9
설비투자	-7.5	7.1	8.2	9.1	2.4	3.2
건설투자	-2.5	-0.4	-0.7	-0.5	2.6	2.4
지식생산물투자	3.0	4.0	4.1	4.0	3.9	3.3
상품수출	0.5	-0.5	8.5	8.5	2.6	2.6
상품수입	-0.8	-0.1	10.1	10.3	3.1	3.3
실업률	3.8	4.0	3.7	3.7	3.6	3.7
소비자물가	0.4	0.5	2.3	2.3	2.0	1.7
경상수지	600	753	920	912	810	651
상품수지	769	819	765	786	750	690
서비스·본원·이전소득수지	-169	-67	155	126	60	-39

주: 1) 전망치임

2) 한국은행(2021. 11), 『경제전망보고서』

3) KDI(2021. 11), 『KDI경제전망』

자료: 한국은행; K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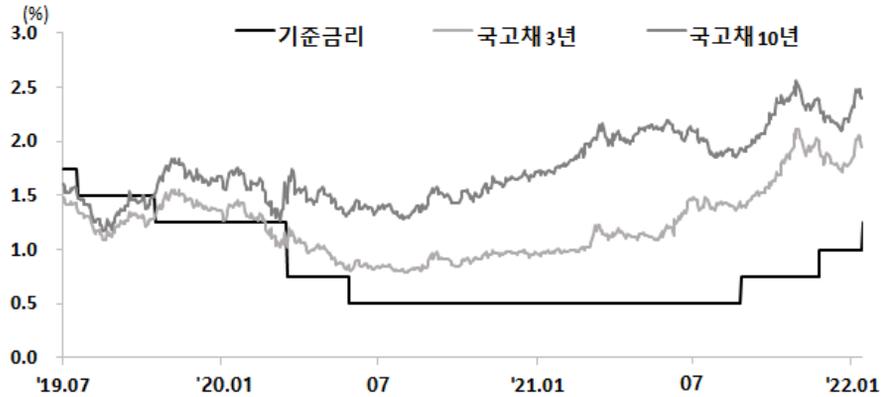
10) 9개 IB(Barclays, BoA-ML, Citi, Goldman Sachs, J.P.Morgan, Nomura, Credit Suisse, HSBC, UBS), 2021년 12월 말 기준임

## 2. 금융

### 가. 금리

- 한국은행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및 공급 차질로 경기 회복세가 주춤하였으나 미국과 아시아지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재개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0.75%에서 1.25%로 상향조정하였고<sup>11)</sup>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상승세를 보임
  - 한국은행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고용상황 및 소비심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목표치를 상회하는 물가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2021년 11월 25일과 2022년 1월 14일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25%p씩 인상함
    - 기준금리 인상으로 경기 회복세는 둔화될 수 있으나 자산가격 상승 및 시장의 과도한 유동성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우려되어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축소하고 금융불균형 위험을 해소하고자 함
  - 장단기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의 기준금리 인상 기대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지속 우려 등의 영향으로 3년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상승하였으며, 이후 정책당국의 시장안정화 조치<sup>12)</sup> 등으로 상승폭이 축소됨
    - 11월 3년물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각각 2.12%, 2.51%를 기록함

〈그림 17〉 기준금리, 장단기 국고채 금리



자료: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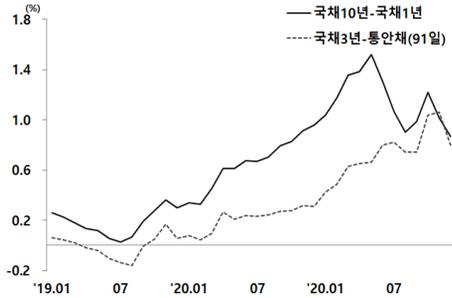
-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와 기준금리 인상,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 우려 등의 영향으로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 신용스프레드는 확대됨

11) 한국은행(2021. 11. 25),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12) 한국은행은 통화안정증권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중도환매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하였고 2조 원 규모의 국고채 긴급 바이백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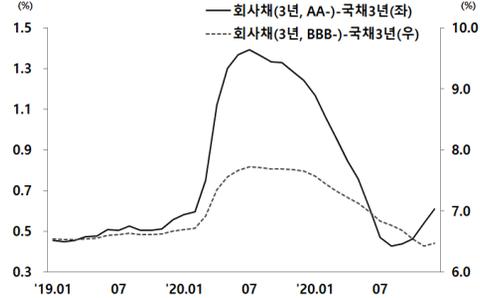
- 장단기 스프레드(10년물 - 3년물)는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장기금리 상승과 외국인의 대규모 국채선물 순매도 지속 등에 따른 단기물 중심의 상승세로 인해 10월 68.1bp에서 12월 33.8bp로 축소됨
- 신용스프레드(회사채AA-, 국고채 3년물)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국고채 금리 변동성 확대와 신용채권에 대한 투자심리 축소 등의 영향으로 10월 46.0bp에서 12월 61.0bp로 확대됨

〈그림 18〉 장단기 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그림 19〉 신용스프레드



자료: 한국은행

- 미국 국고채 금리는 미 연준의 데이퍼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우호적 수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제한된 상승세를 보임
  - 11월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경제지표 호조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대한 우려로 제한된 상승세를 보이며 1.67%를 기록함
    - 10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는 6.2%로 1990년 12월 이래로 최고치를 경신함
  - 이후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가속화에도 불구하고 미 국고채에 대한 우호적 수요가 이어지면서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11월 말 1.44%에서 12월 말 1.50%로 상승함
-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1/4분기 한국의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를 지난 10월 전망치에 비해 상향 조정한 반면, 미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하향 조정함
  - 2022년 1/4분기 한국 3년물,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각각 1.94%, 2.44%로 지난 10월 전망치에 비해 0.22%p, 0.31%p 상향 조정하였고 미국 10년물 국고채 금리 전망치는 1.71%로 지난 전망치에 비해 0.09%p 하향 조정함

〈표 2〉 주요 해외 투자은행 금리 전망 평균

(단위: %)

미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10년) 금리			한국 국고채(3년) 금리		
'22. 1Q	2Q	3Q	'22. 1Q	2Q	3Q	'22. 1Q	2Q	3Q
1.71	1.85	1.95	2.44	2.48	2.57	1.94	1.90	1.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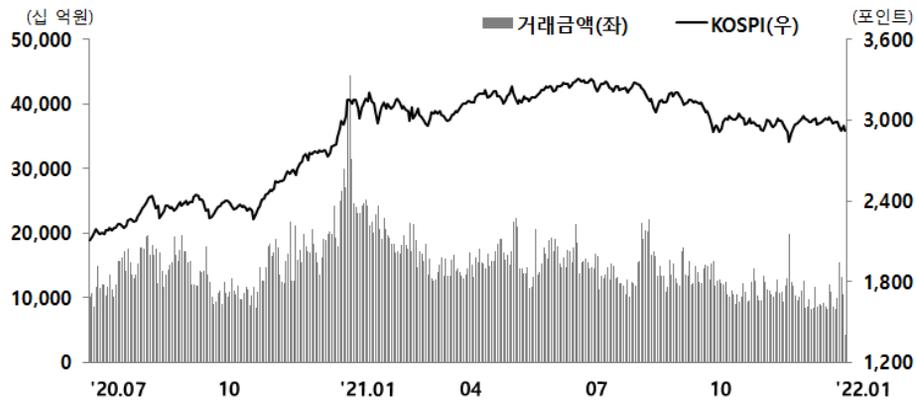
주: 2022년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월 중순 기준임

자료: Bloomberg

## 나. 주가 및 환율

- 코스피(KOSPI) 지수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도 불구하고 건조한 수출 실적과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 3,000선에서 박스권을 지속함
  - 11월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 업황 회복 기대감으로 소폭 상승하였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월 말에는 연중 최저치(2,839포인트)로 마감함
  - 12월에는 코로나 재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수 조정에 따른 밸류에이션 부담 축소, 건조한 수출 실적, 풍부한 시중 유동성 등의 영향으로<sup>13)</sup> 코스피 지수는 3,020포인트까지 반등함

〈그림 20〉 주가지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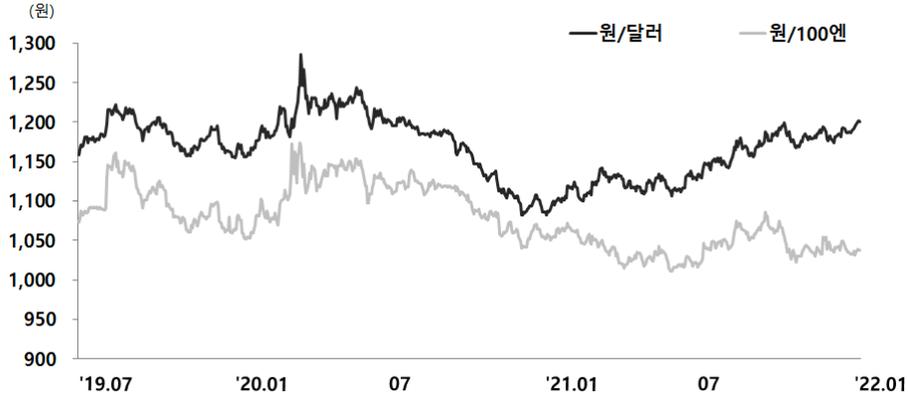
자료: 한국거래소

- 원/달러 환율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며 달러화 강세를 보였으며, 미 연준의 점진적인 통화긴축 스탠스 강화 등의 영향으로 상승세를 지속함
  - 11월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의 국채 선물 매도세 심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며 1,190원대로 반등함
  - 이후 미국 인플레이션 장기화에 따른 미 연준의 조기 금리 인상 우려 및 자산매입 축소 발표 등의 영향으로 달러화 강세가 지속되며, 1월 초 원/달러 환율은 1,200원대까지 상승함
- 원/엔 환율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글로벌 경제의 하방위험이 커지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고 있으나 일본 중앙은행(BOJ)의 차별화된 통화정책, 낮은 인플레이션 등으로 하락세를 보임
  - 11월 원/엔 환율은 오미크론 확산과 주요국의 재봉쇄 조치 등의 영향으로 경기회복세 둔화가 우려되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어 100엔당 1,150원대로 소폭 상승함

13) 우리금융경영연구소(2022. 1. 6), 「한은, 1월 기준금리 추가 인상 전망」, 『1월 금융시장 브리프』

- 한편, 일본 중앙은행(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와 낮은 인플레이션 지속,<sup>14)</sup>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무역 적자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원/엔 환율은 하락세를 나타냄

〈그림 21〉 원/달러 및 원/엔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 주요 해외 투자은행들은 2022년 1/4분기 환율이 전분기와 유사하거나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함
  - 원/달러 환율은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차 축소 가능성, 무역수지 적자 반전 등의 영향으로 원화 약세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표 3〉 주요 해외 투자은행 환율 전망 평균

(단위: 원, 엔, 달러)

구분	원/달러		엔/달러		달러/유로	
	'21. 4Q	'22. 1Q	'21. 4Q	'22. 1Q	'21. 4Q	'22. 1Q
Wells Fargo	1,170	1,200	114	115	1.14	1.11
Mizuho Bank		1,200		116		1.13
PNC Financial		1,200		116		1.12
BNP Paribas		1,195		116		1.13

주: 2022년 1분기에 대한 투자은행의 블룸버그 가중평균 값으로, 예측 시점은 1월 중순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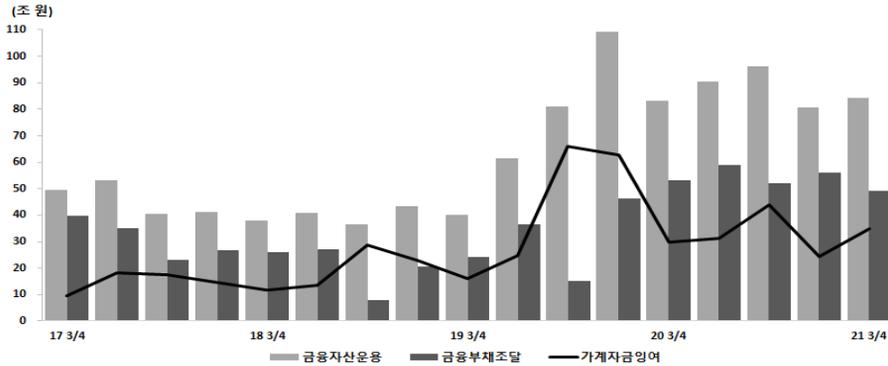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14) 일본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11월 기준 0.6%로 2019년 말 이후 연 1% 아래를 기록하고 있음

### 3. 자금흐름

- 2021년 3/4분기 가계부문<sup>15)</sup>의 자금잉여<sup>16)</sup>는 35.0조 원으로 전기 대비 10.5조 원 증가하였음
  - 2021년 3/4분기 가계부문의 금융부채조달은 49.2조 원으로 전기 대비 감소하였고, 금융자산 운용은 84.2조 원으로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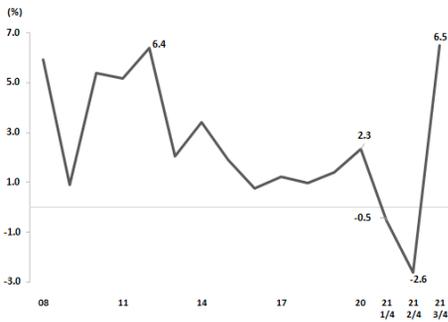
〈그림 22〉 가계자금잉여



자료: 한국은행

- 2021년 3/4분기 처분가능소득은 6.5% 늘어나며 15년 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고, 2021년 2/4분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12.4%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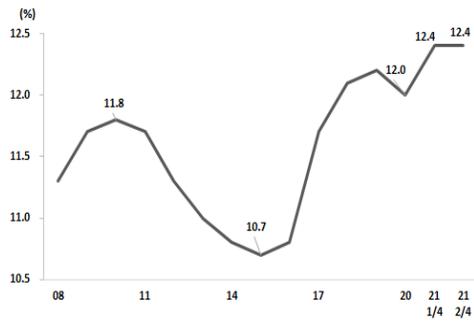
〈그림 23〉 명목 처분가능소득 증가율



- 주: 1)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임  
 2) 2020년 이후 증가율은 '2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에서 '2인 이상 가구 비농림어가'로 변경, 발표된 수치임

자료: 통계청

〈그림 24〉 DSR



자료: BIS

15) 가계(소규모 개인사업자 포함) 및 가계에 봉사하는 민간비영리단체를 의미함

16) 가계자금잉여는 가계부문이 일정기간 동안 운용한 금융자산 규모에서 조달한 금융부채 규모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는 가계부문이 금융산업에 순공급한 자금을 의미함

- 2021년 3/4분기 가계부문에서 현금 및 예금, 채권 거래금액은 증가한 반면, 보험 및 연금, 국내외 주식 거래금액은 전기 대비 감소하였음
- 2021년 3/4분기 보험 및 연금 거래 비율은 14.5%로, 2/4분기 소폭 상승 이후 다시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 수준에 머물러 있음

〈표 4〉 가계 금융상품 거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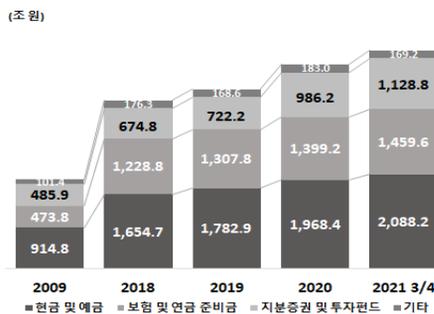
(단위: 조 원, %)

구분	현금 및 예금	보험 및 연금		채권	거주자 발행주식 및 지분	비거주자 발행주식	투자펀드	기타	합계
2017	105.4	83.3	(46.8)	-11.9	0.0	1.3	-3.6	3.6	178.1
2018	75.3	60.7	(37.8)	0.0	21.8	1.7	0.0	1.2	160.7
2019	130.7	72.0	(39.6)	-17.3	-7.9	2.1	2.0	0.0	181.6
2020	189.9	73.0	(20.1)	10.2	62.2	20.6	-6.6	14.5	363.8
2021 1/4	41.9	13.8	(14.4)	-11.8	36.5	12.5	2.6	0.6	96.1
2021 2/4	36.3	13.0	(16.1)	-5.1	29.2	2.8	1.0	3.3	80.5
2021 3/4	42.1	12.2	(14.5)	0.7	26.1	2.4	-1.4	2.1	84.2

주: 괄호 안은 전체 거래금액 중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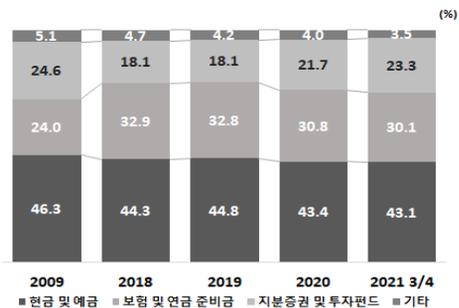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가계 금융자산 중 보험 및 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0.1%로 2020년에 비해 0.7%p 하락함
- 2021년 3/4분기 가계 자산 중 현금 및 예금 비중은 2020년 대비 0.3%p 하락한 43.1%이고, 지분증권 및 투자펀드 비중은 전년도보다 1.6%p 증가한 23.3%임

〈그림 25〉 가계금융자산 구성(금액)



자료: 한국은행

〈그림 26〉 가계금융자산 구성(비중)



자료: 한국은행

## 4. 규제·제도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 인정(2021. 12. 31 금융위원회)
  - 자동차보험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는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2022년 1월 1일부터는 부부특약 가입자의 배우자가 별도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기존 보험계약의 무사고 경력을 동일하게 인정하여(최대 3년) 약 20~30%의 보험료 인하 효과를 예상할 수 있음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2022. 1. 1)(2021. 12. 30 금융감독원)
  - 마약·약물 운전 등에 대한 경각심 고취 등을 위해 마약·약물 운전자의 사고부담금(최대 1억 5천만 원)을 신설하고, 음주·무면허 운전·뺑소니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을 최대 1천 5백만 원에서 최대 1억 7천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함
  - 군복무(예정)자 사망 시 병사급여가 아닌 일용근로자 급여를 기준으로 상실수익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하고, 상실수익액 산정 시 할인율(중간이자 공제)을 복리방식(라이프니츠식)에서 단리방식(호프만식)으로 변경하도록 함으로써 사망·후유장애 보험금이 증가함
  - 이륜차 사고 시 이륜차 전용의류의 구입가격을 입증할 경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를 보상하도록 보상기준을 명확화함
- 외화보험 설계·판매 시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2021. 12. 22 금융위원회)
  - 외화보험은 일반보험과 동일하게 위험을 보장하면서 보험료 지급, 보험금 수취 등은 모두 '외화'로 이루어지는 상품이지만, 실제 판매 시 소비자는 '원화'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만기가 긴(30년 이상) 보장성보험(종신, 질병보험)과 저축성보험(연금보험) 위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음
  - 외화보험은 설명 불충분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증가, 환율에 따른 위험 부담으로 소비자의 금전손실 발생, 보험회사의 환율변동에 따른 건전성·유동성위험이 내재되어 있음
  - 소비자보호를 위해 외화보험 판매절차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책임하에 외화보험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충분히 점검하고 예방대책 마련 후 판매하도록 하며, 단계적 소비자보호조치를 도입할 것임
  - 실수요자 필요에 의해 가입할 수 있도록 모집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보험회사의 유동성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외화유동성리스크 관리기준」을 마련할 것임
-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 옵션) 도입(2021. 12. 9 금융위원회)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2021. 12. 9)함에 따라 퇴직연금(DC·IRP)에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을 경우 사전에 미리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제도인 디폴트옵션이 시행될 예정임(2022년 6월 중)

- 이를 통해 퇴직연금이 적극적으로 운용됨으로써 장기수익률을 제고하고 가입자의 노후대비 자산형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퇴직연금사업자(보험, 증권, 은행)와 상품제공자(보험, 자산운용사 등)의 상품 개발 노력 등으로 시장 내 수익률 경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 금융공공데이터, 특수법인까지 개방 확대(2021. 11. 22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2020년 6월 9일부터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금융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국민들이 쉽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OpenAPI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 2021년 11월 22일 현재 보험업분야를 포함한 4개 특수법인과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유한 금융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18개 API를 추가 개방하였음
- 보험업분야인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의 퇴직연금 펀드, 실손보험, 변액보험 펀드에 대한 보험상품기본정보 개방으로 표준화된 상품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정보와의 융합과 활용이 용이해질 것임

○ 무·저해지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 개선(2021. 11. 5 금융위원회)

- 최근 무·저해지보험 판매 증가와 함께 보험료 인하를 위한 과당 경쟁 심화로 보험사 건전성 악화 및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됨
- 이에 금융당국은 ① 「해지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해지율 산출체계 개선, ②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 강화, ③ 상품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절차 마련, ④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 해지환급금 설정 유도를 통하여 합리적인 해지율 및 해지환급금 설정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함

○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가입 서비스 지정기간 연장(2021. 10. 13 금융위원회)

- 소액 기업성 보험인 가스·재난·학원 및 교습소·화재 배상책임보험과 간편실손화재보험의 계약 시 기존에는 법인인감 날인 및 인감증명서 확인 절차 등이 필요했으나, 이제는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담당자 본인인증을 통해 서류 없이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하는 서비스 기간을 연장함

## II

## 보험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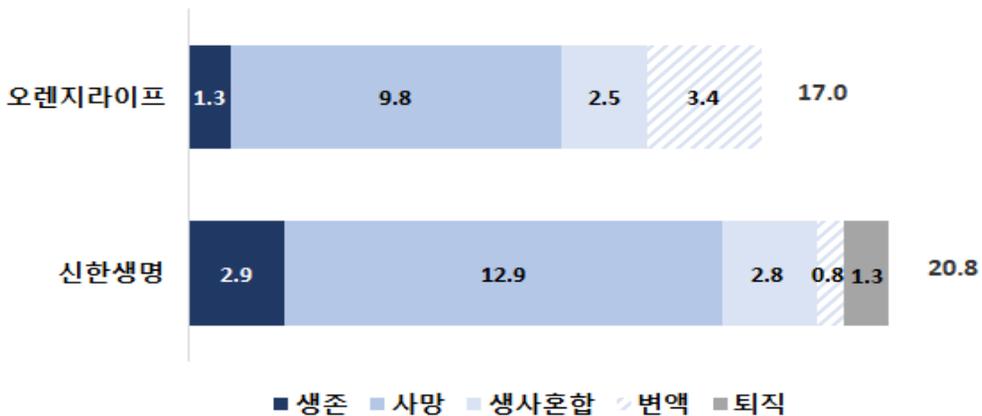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338조 원임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한 980조 원이었으며,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한 358조 원임
  - 보험산업 자산 성장에는 책임준비금 확대와 이익잉여금 증가가 주로 기여함
-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2021년 3/4분기 0.5조 원 흑자를 나타냄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24.9조 원임
  - 수입보험료와 보험금 지급이 모두 감소하면서 보험영업현금흐름이 흑자를 기록함
-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2021년 3/4분기 0.4조 원 적자를 기록함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23.9조 원임
  - 손해율과 사업비율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하면서 보험영업현금흐름이 적자를 나타냄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누적 당기순이익은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함
  - 생명보험 당기순이익은 금리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와 배당수익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3.5조 원을 기록함
  - 손해보험 당기순이익은 보험료 수입 증가, 손해율 개선, 고액사고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62.6% 증가한 3.9조 원을 나타냄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은 대형사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 참고: 신한생명의 오렌지라이프 흡수 합병에 따른 분기 동향지표 변동 〉

- 2021년 7월 1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피합병회사로 소멸하였으며 존속회사인 신한생명보험은 신한라이프로 새롭게 출범함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은 2019년 2월 신한금융지주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 신한생명보험과는 별도의 자회사로 운영되어 왔음
  - 2021년 5월 12일 금융위원회가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흡수 합병을 인가함으로써 2021년 7월 신한생명보험과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흡수 합병이 완료됨
- 흡수 합병에 따른 전산 및 회계 통합 과정에서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2021년 상반기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등이 신한라이프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으로 처리되면서, 오렌지라이프의 2021년 상반기 실적은 생명보험산업 동향 지표에 일부 누락됨
  - 신한라이프는 금융위원회가 인가한 합병비율 조건에 따라 자본금을 산정하고, 자산과 부채 등의 재무상태표를 통합함
  - 2021년 3/4분기 이후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총자산, 수입보험료, 보험금 등과 같은 업무보고서 실적은 존재하지 않음
- 흡수 합병에 따른 업무보고서 통합으로 전체 생명보험산업의 일부 분기별 지표의 왜곡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표 활용 시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오렌지라이프생명보험의 2021년 상반기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누락으로 2021년 3/4분기 전체 생명보험산업 수입보험료 및 보험금, 사업비 등이 모두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참고 그림 1〉 2021년 상반기 종목별 수입보험료

(단위: 조 원)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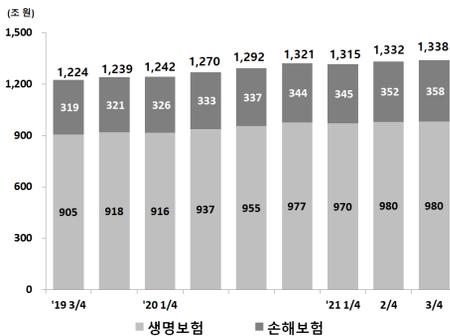
# 1. 성장성<sup>17)</sup>

## 가. 자산

○ 2021년 3/4분기 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한 1,338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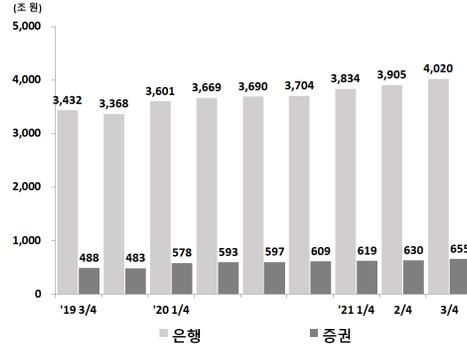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980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하였으나 최근 자산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손해보험산업 총자산은 358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 증가함
- 은행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8.9% 증가한 4,020조 원이며, 증권산업 총자산은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655조 원임

〈그림 1〉 보험산업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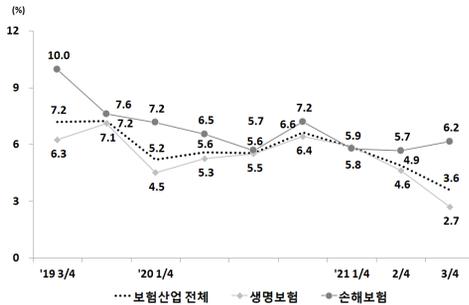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 은행 및 증권 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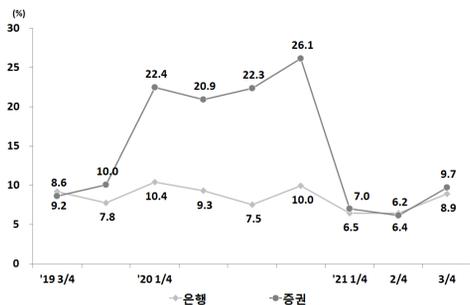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3〉 보험산업 총자산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 은행 및 증권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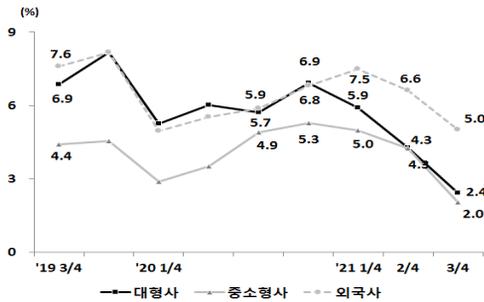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17) 본고에서는 보험회사의 성장성을 측정하는 대표 지표로 자산성장률을 제시하며, 본장에서는 보험산업의 자산 성장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보험산업 자산의 구성요소를 분해하여 각 요소가 성장에 기여한 정도를 파악함.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보험영업 중심의 성장을 측정하는 지표는 적절할 수 있으나, 자산운용(투자영업) 부문을 간과하고 현금 유출을 고려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외국사의 전년 동기 대비 자산 증가율이 다른 그룹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나타냄<sup>18)19)</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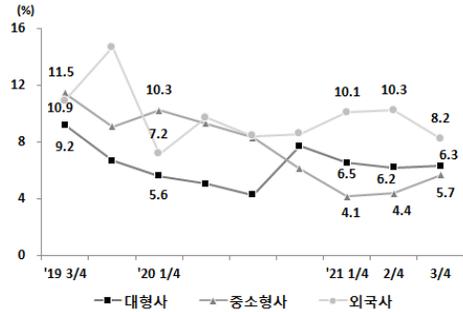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외국사 자산 증가율이 5.0%였으며,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산 증가율은 각각 2.4%, 2.0%임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외국사 자산 증가율이 8.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의 자산 증가율은 각각 6.3%, 5.7% 순임

〈그림 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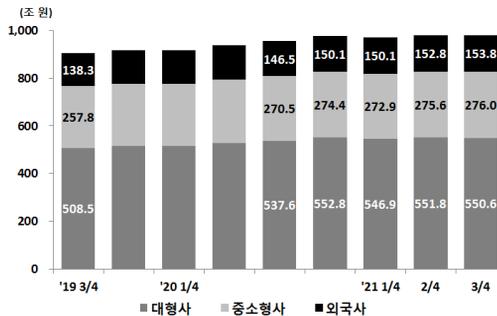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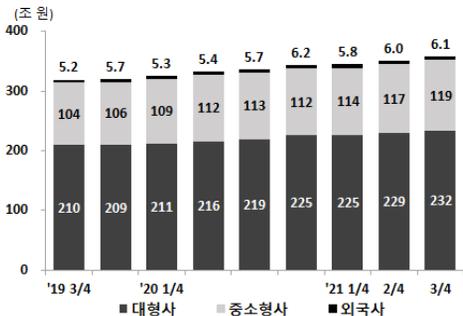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생명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수입보험료 기준 상위 3개사이며, 중소형사는 11개사, 외국사는 9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총자산



주: 손해보험회사의 대형사는 원수보험료 기준 상위 4개사이며, 중소형사는 10개사, 외국사는 17개사임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18) 생명보험산업은 총 23개사로 수입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3개 회사, 중소형사 11개 회사와 외국사 9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19) 손해보험산업은 총 31개사로 원수보험료를 기준으로 대형사 4개 회사, 중소형사 10개 회사와 외국사 17개 회사를 포함함(외국사는 금융감독원의 외국사 분류 기준을 준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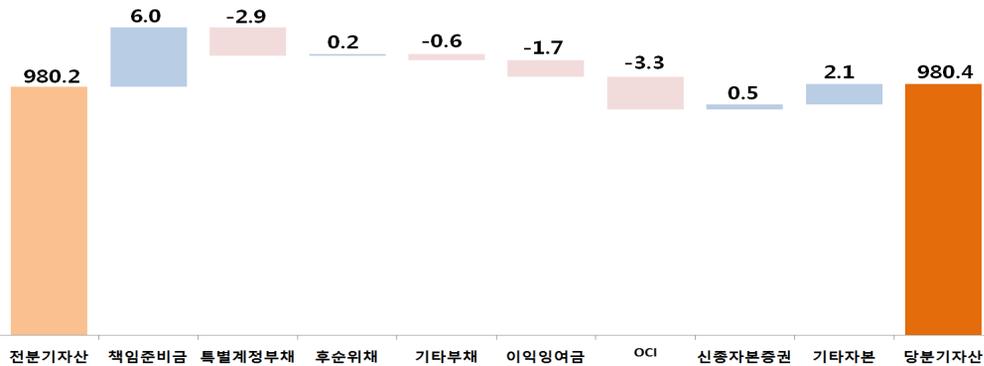
## 나. 생명보험 성장 요인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0.2조 원 증가한 980.4조 원임

- 책임준비금은 총자산 증가에 6.0조 원 기여하였으며, 기타자본 증가도 자산 성장에 2.1조 원 기여함
- 그러나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축소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은 3.3조 원 감소함

〈그림 9〉 생명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 참고: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적립 등)'로 나타낼 수 있으나,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를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이므로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책임준비금전입액 + 기타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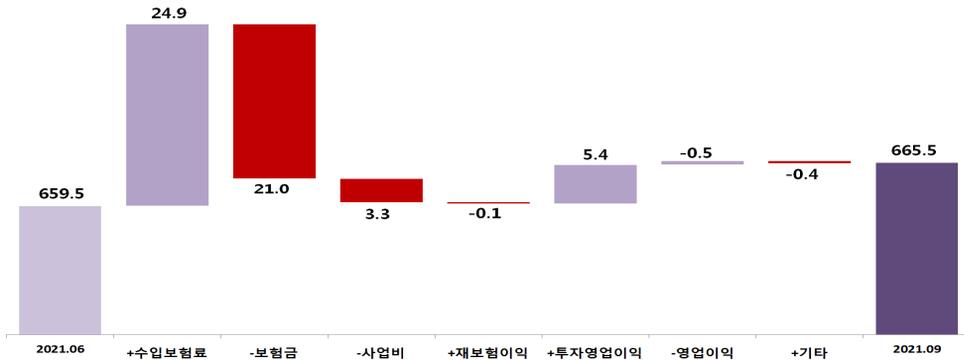
## 1) 생명보험 책임준비금

○ 생명보험 책임준비금은 전분기 대비 6.0조 원 증가한 665.5조 원임

-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사업비<sup>20)</sup>를 차감한 금액은 0.6조 원 흑자를 나타냈고, 투자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5.4조 원 증가함

〈그림 10〉 생명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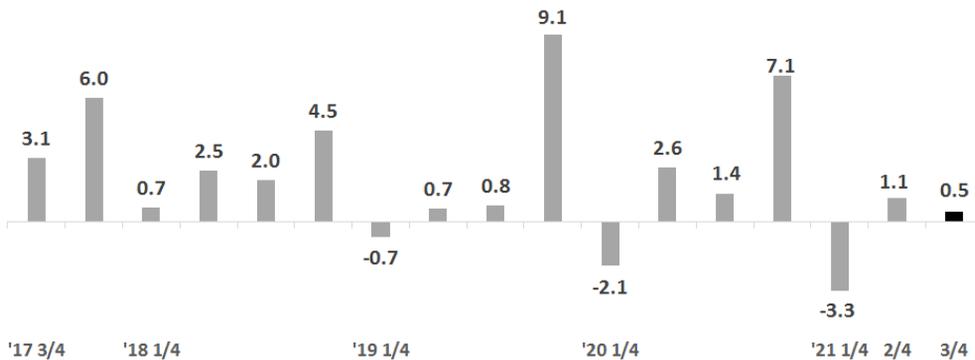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3/4분기 보험영업현금흐름(수입보험료 - 보험금 - 실제사업비)은 사업비 감소 등으로 0.5조 원 흑자를 나타냄

〈그림 11〉 생명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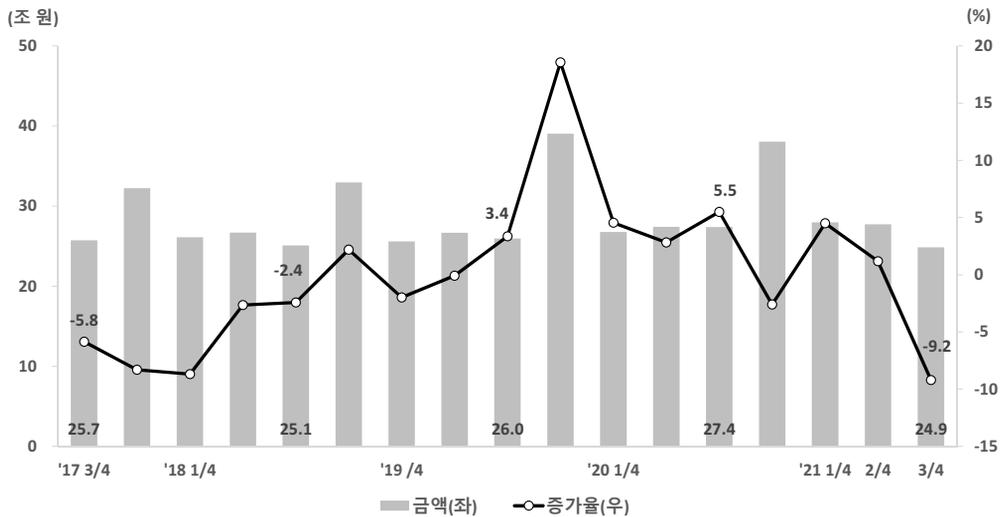
주: 보험영업현금흐름은 수입보험료에서 보험금과 이연전사업비를 차감한 금액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0)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 가)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이 크게 감소하여 전년 동기 대비 9.2% 감소한 24.9조 원을 나타냄
  - 특히, 흡수 합병<sup>21)</sup>에 따른 업무보고서 결합의 영향으로 수입보험료가 큰 폭으로 감소함
- 종목별로 보면, 종신보험과 일반저축보험 수입보험료가 감소하고 변액저축보험 증가세도 둔화됨
  -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는 흡수 합병의 영향과 종신보험 신규 판매 부진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10.6조 원을 나타냄
    - 종신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한 5.9조 원을 나타냄
  -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1.7% 감소한 11.9조 원이었으며, 이는 흡수 합병의 영향과 금리 경쟁력 축소에 따른 저축보험 판매 감소가 주요한 원인임
  - 퇴직연금과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7%, 1.2% 증가한 2.2조 원, 0.18조 원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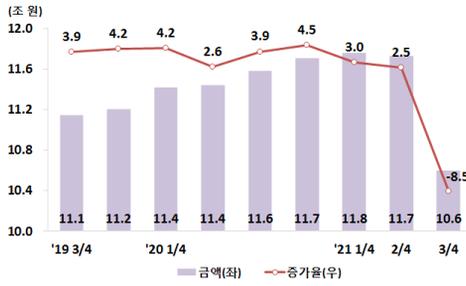
〈그림 12〉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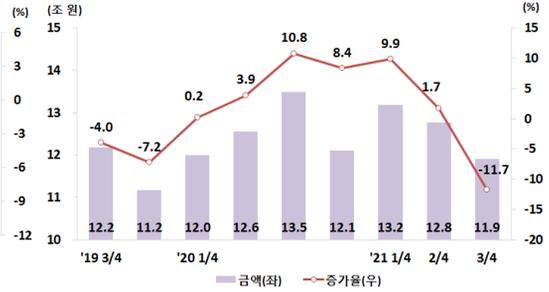
21) 금융위원회가 신한라이프의 오렌지라이프생명 흡수 합병 인가를 승인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두 보험회사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업무보고서가 신한라이프 하나로 결합됨

〈그림 13〉 보장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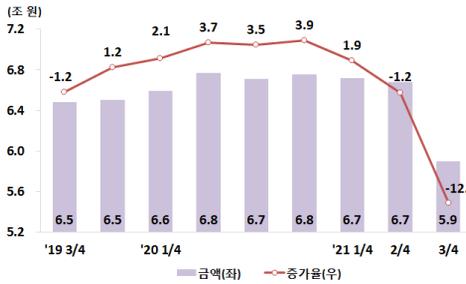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4〉 저축성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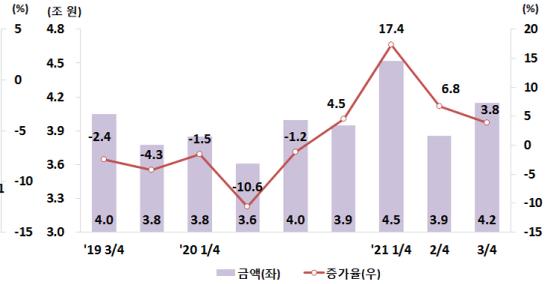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5〉 종신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6〉 변액 저축성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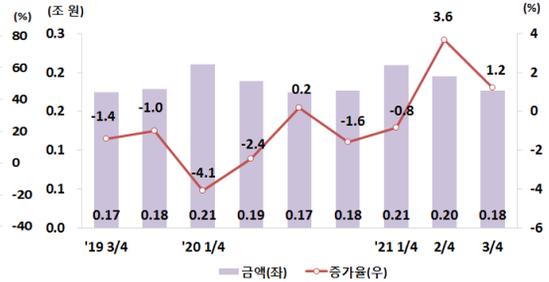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7〉 퇴직연금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8〉 일반단체보험 수입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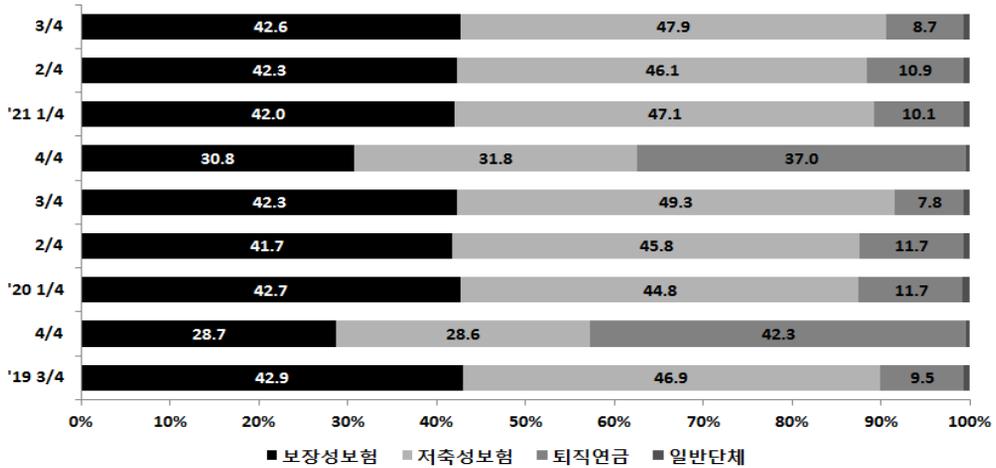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의 경우, 보장성보험과 퇴직연금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고 저축성보험 비중은 축소됨

- 저축성보험 비중은 전년 동기 확대된 저축보험의 기저효과 등으로 1.4%p 축소된 47.9%를 나타냄
- 보장성보험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0.3%p 확대된 42.6%를 기록하였으며, 퇴직연금 비중은 수입보험료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0.9%p 확대된 8.7%를 나타냄

〈그림 19〉 생명보험 종목별 수입보험료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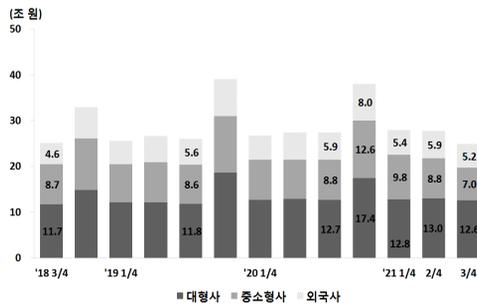


주: 전체 수입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1년 3/4분기 대형사의 전년 동기 대비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0.4%로 역 성장을 나타냈으나 다른 그룹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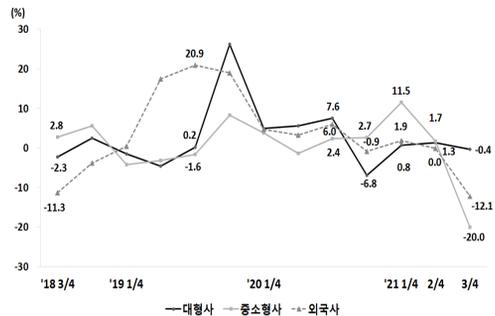
-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20.0%, -12.1%로 매우 낮은 수준을 나타냄

〈그림 2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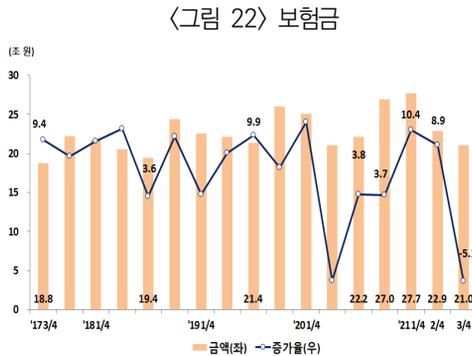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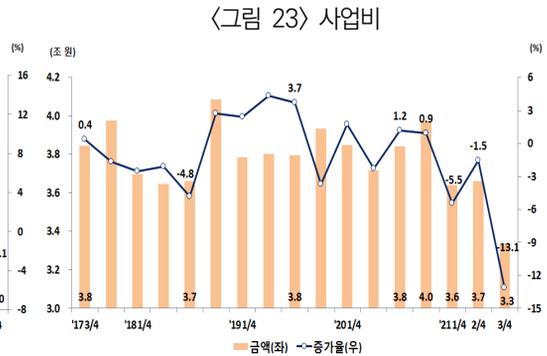
## 나) 생명보험 보험금 및 사업비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의 지급보험금과 사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1%, 13.1% 감소함

- 지급보험금은 환급금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하였으며, 사업비도 대면채널 신규판매 위축 등으로 감소세를 지속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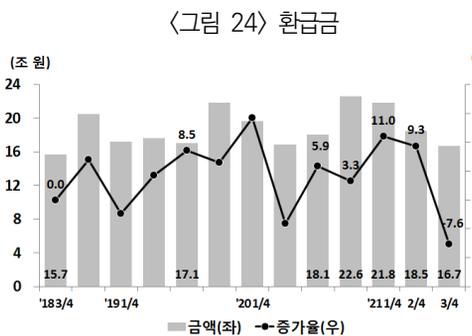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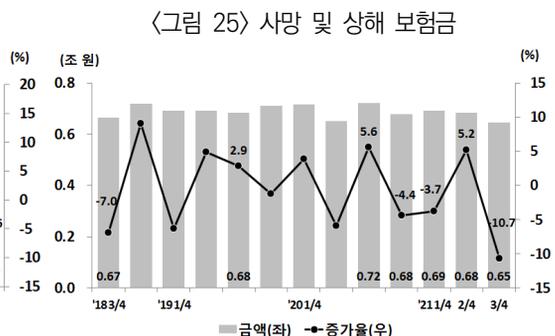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 보험금을 종목별로 보면, 환급금, 사망 및 상해 보험금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 지난 분기 확대된 환급금 및 보험금 지급 등이 이번 분기 감소세로 전환됨
- 만기 및 퇴직 보험금은 퇴직연금 수령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9.5%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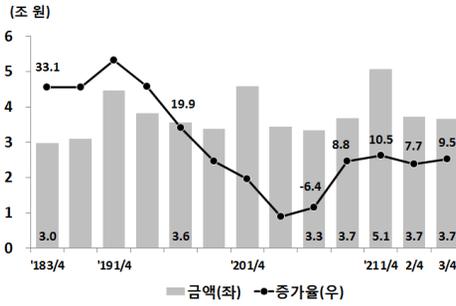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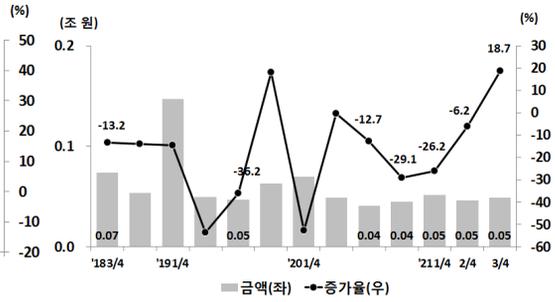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6〉 만기 및 퇴직 보험금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7〉 배당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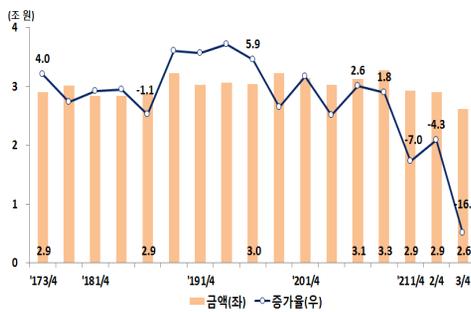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의 보장성보험과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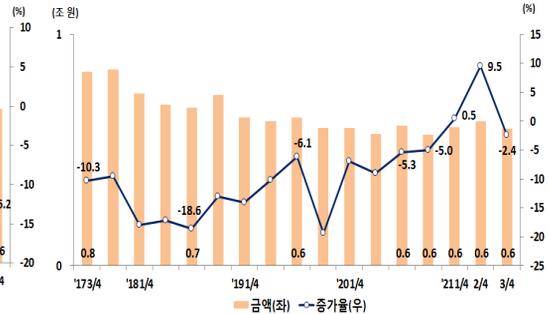
- 보장성보험 사업비는 종신보험 신규 판매 둔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2% 감소함
- 저축성보험 사업비는 저축보험 신규 판매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함

〈그림 28〉 보장성보험 사업비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29〉 저축성보험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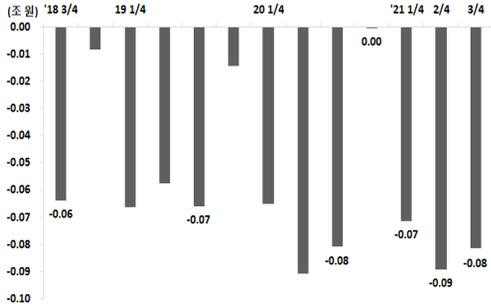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다) 재보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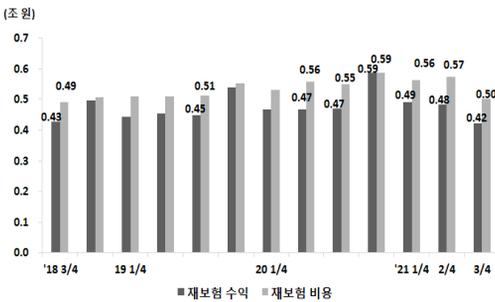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0.08조 원 적자를 나타냈으며, 재보험 수익과 재보험 비용은 각각 0.42조 원과 0.50조 원임

〈그림 30〉 생명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1〉 생명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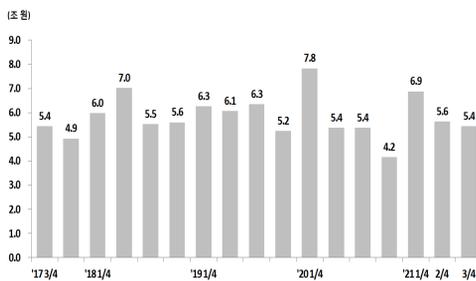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라) 생명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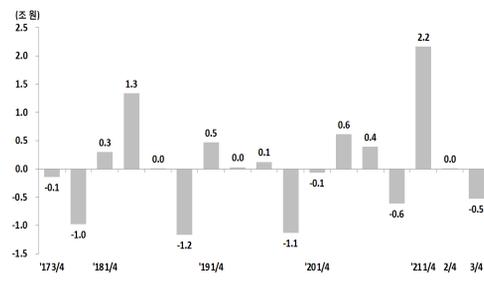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의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와 동일한 5.4조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0.9조 원 감소한 0.5조 원 적자를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이자수익은 고금리 채권 매각의 영향으로 감소함
  - 영업이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준비금 축소에도 불구하고 수입보험료 감소 등으로 적자를 나타냄

〈그림 32〉 투자영업이익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3〉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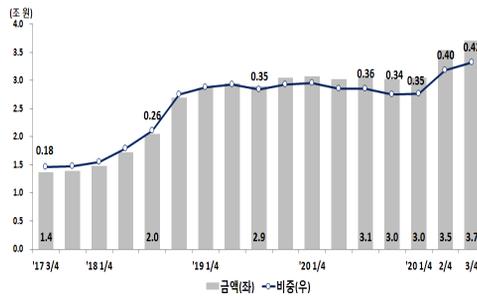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생명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 후순위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되었으나 기타부채<sup>22)</sup> 규모는 축소됨

- 후순위채 규모는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sup>23)</sup>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조 원 확대된 3.7조 원을 나타냄
- 기타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에 비하여 3.3조 원 감소한 39.1조 원을 기록함

〈그림 34〉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5〉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2) 2021년 들어 미래에셋생명보험, KB생명보험, DGB생명보험, 푸본현대생명보험은 각각 3,000억 원, 1,300억 원, 500억 원, 545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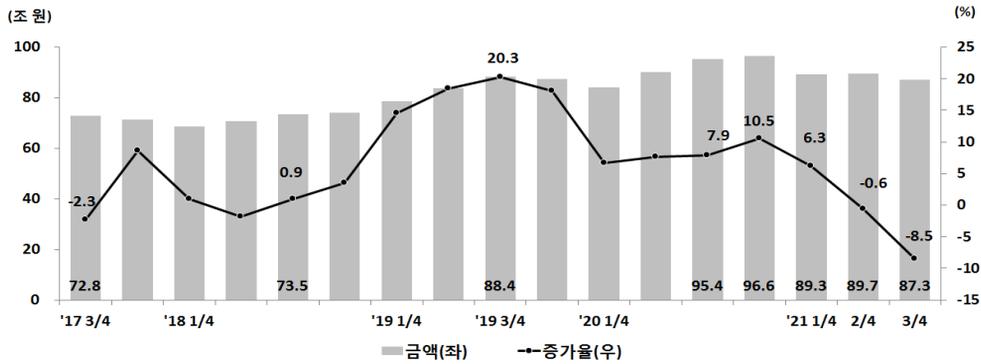
23)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 3) 생명보험 자본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 총자본은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8.5% 감소한 87.3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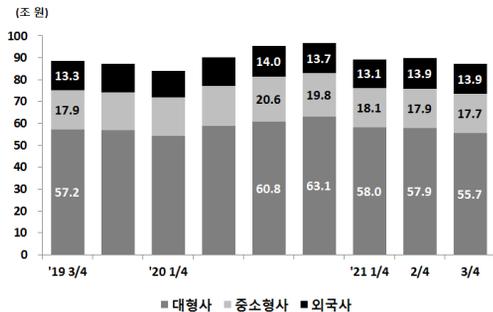
- 그룹별로 보면, 중소형사 총자본 증가율이 -13.7%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대형사와 외국사 총자본도 각각 전년 동기 대비 8.4%, 1.3% 감소함

〈그림 36〉 생명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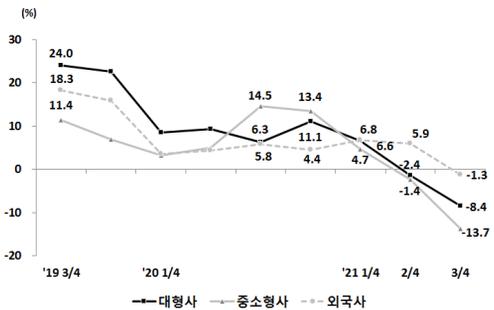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3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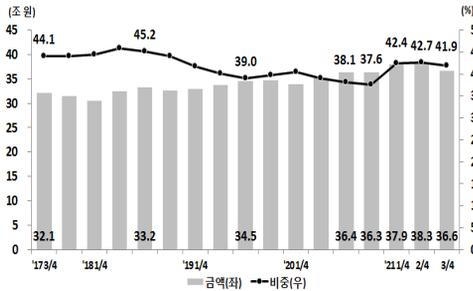
〈그림 3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총자본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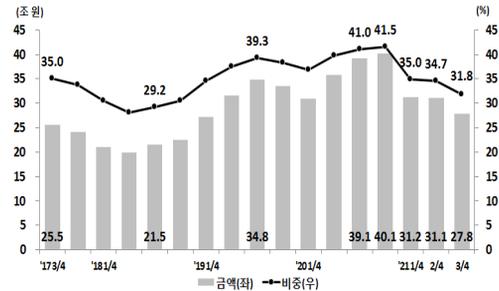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 총자산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축소됨
  - 이익잉여금 비중은 당기순이익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p 확대된 41.9%를 나타냄
  - 기타포괄손익누계액(OCI) 비중은 금리 상승에 따른 채권 평가이익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9.2%p 하락한 31.8%를 기록함
  - 신종자본증권 비중은 일부 생명보험회사의 신종자본증권 발행<sup>24)</sup>으로 5.4%까지 확대됨

〈그림 39〉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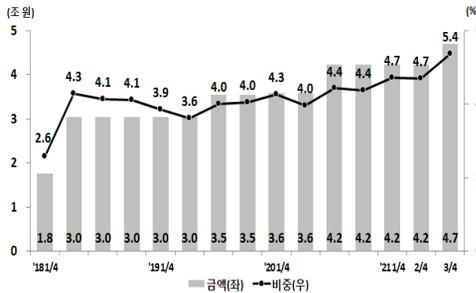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0〉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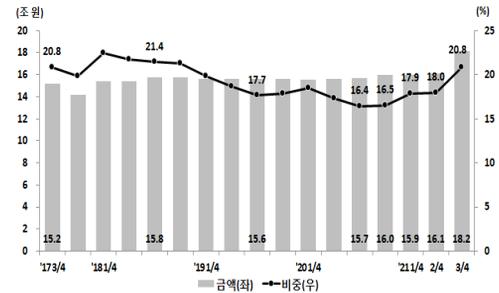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1〉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2〉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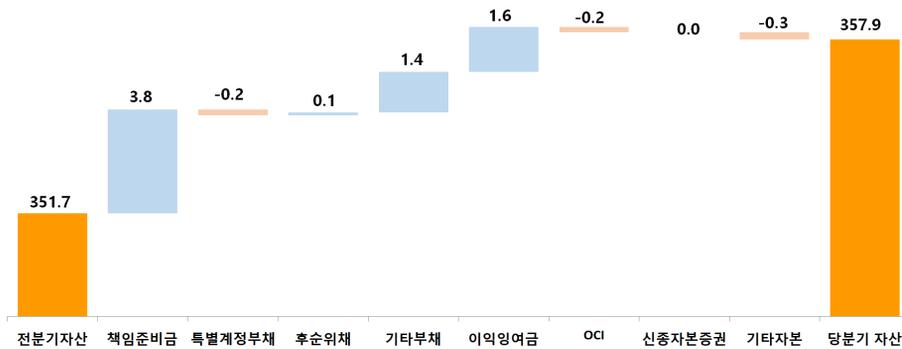
24) 2021년 9월 교보생명은 4,700억 원 규모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함

## 다. 손해보험 성장 요인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 총자산은 전분기 대비 6.2조 원 증가하였으며, 책임준비금, 이익잉여금, 기타부채 증가가 자산 성장에 기여함
  - 원수보험료 확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는 손해보험 총자산 성장에 3.8조 원 기여함
  -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이익잉여금 확대가 자산 성장에 1.6조 원 기여하였고, 기타부채도 1.4조 원 확대됨

〈그림 43〉 손해보험산업 자산 변화

(단위: 조 원)



주: OCI는 기타포괄손익누계액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 참고: 보험회사 책임준비금 변화 〉

- 책임준비금의 증분은 대략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 + 기타(LAT 추가적립 등)'으로 나타낼 수 있으나, 현행 손익계산서에는 적립이자와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이 드러나지 않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공시된 손익계산서를 이용하여 '적립이자 - (위험률차익 + 사업비차익)'를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으로 추정하여 책임준비금 변화를 분석함
  - 손익계산서로부터 '영업이익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책임준비금전입액'이므로 '책임준비금전입액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인데, 실제 대차대조표상의 책임준비금 증감은 손익계산서상의 책임준비금전입액과 다소 차이가 있음
  - 따라서, 책임준비금 증감
    - = 책임준비금전입액 + 기타
    - = [보험영업이익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 = [(수입보험료 - 보험금 - 사업비) + (재보험수익 - 재보험비용) + 투자영업이익 - 영업이익] +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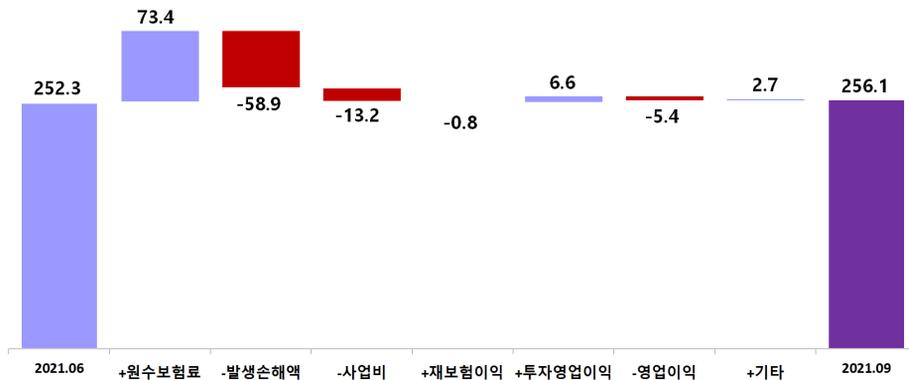
## 1) 손해보험 책임준비금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의 책임준비금은 전분기 대비 3.8조 원 증가함

-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사업비<sup>25)</sup>를 차감한 금액은 1.3조 원 흑자를 나타냄
- 투자영업이익과 기타(LAT 추가 적립 등)가 책임준비금 증가에 각각 6.6조 원, 2.7조 원 기여함

〈그림 44〉 손해보험산업 책임준비금 변화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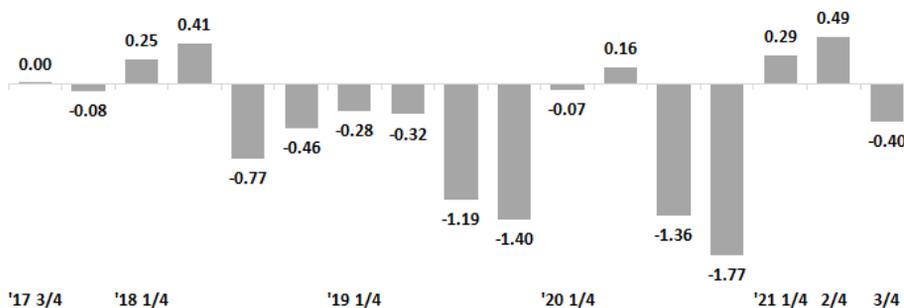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의 보험영업현금흐름(원수보험료 - 발생손해액 - 실제사업비)은 원수보험료 확대에도 불구하고 0.4조 원 적자를 기록함

〈그림 45〉 손해보험 보험영업현금흐름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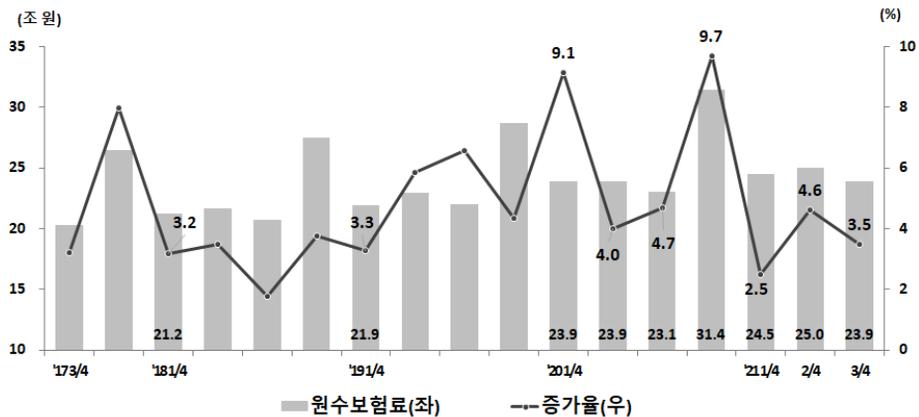
주: 원수보험료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순사업비 + 이연신계약비 - 신계약비상각비)를 차감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5) 여기서 사업비는 순사업비로 이연전사업비와 신계약비상각비를 감안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함

## 가)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양호한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 증가한 23.9조 원을 기록함
  - 장기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계속보험료 확대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한 14.8조 원을 기록함
  - 자동차보험 원수보험료는 전년도 자동차 보험료 인상<sup>26)</sup>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1.4% 증가에 그친 5.0조 원을 나타냄
  - 일반손해보험 원수보험료는 주택화재보험, 배상책임보험, 기타 특종보험의 확대에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2.6조 원을 기록함
  -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성장 동력 부재로 전년 동기 대비 14.3% 감소한 0.6조 원을 기록하였고, 퇴직연금 원수보험료는 전년 동기 대비 12.7% 감소한 0.8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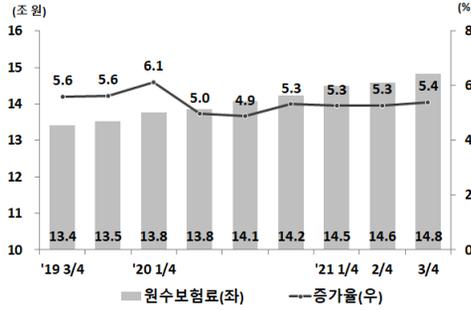
〈그림 46〉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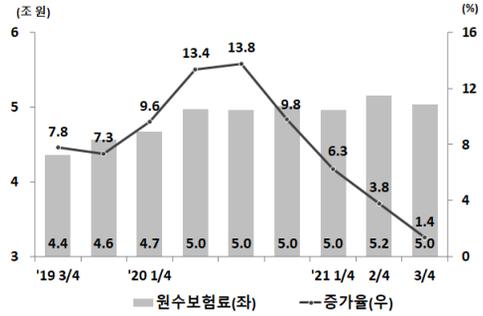
26) 2020년 2월 약 3.5% 수준의 자동차 보험료 조정이 이루어짐

〈그림 47〉 장기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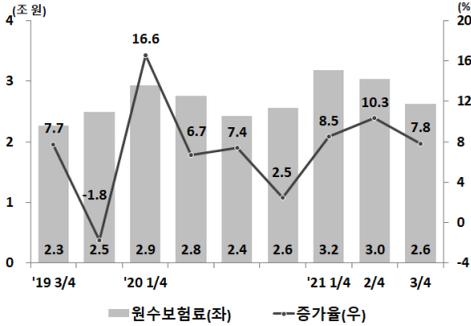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8〉 자동차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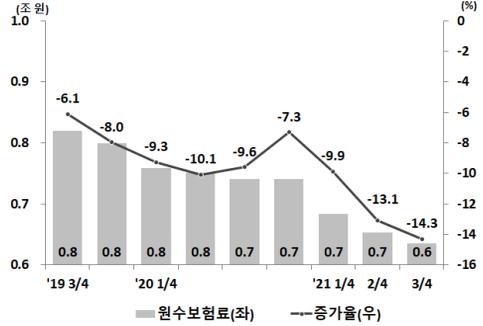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49〉 일반손해보험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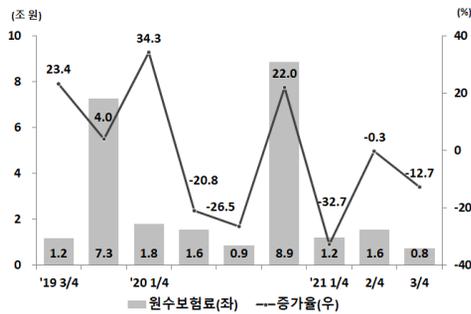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0〉 개인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1〉 퇴직연금 보험료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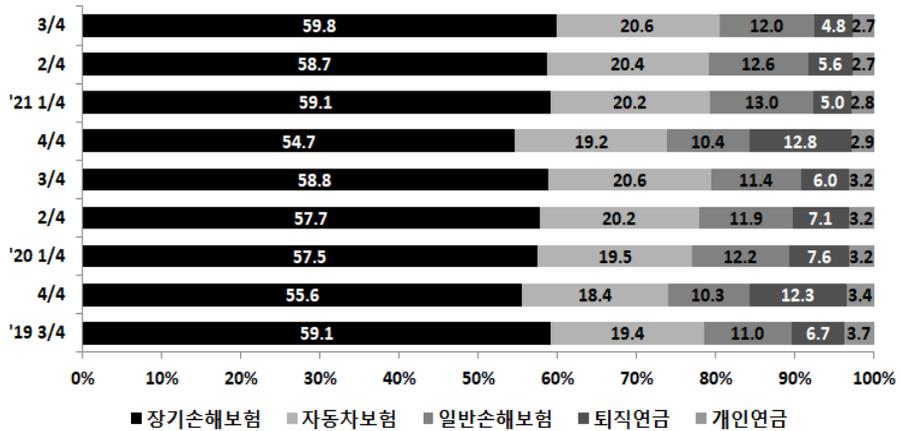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 종목별 원수보험료 가운데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의 원수보험료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됨

- 장기손해보험 비중은 계속보험료 증가로 전년 동기 대비 1.0%p 확대된 59.8%를, 일반손해보험 비중은 배상책임보험과 특종보험 성장으로 전년 동기 대비 0.6%p 확대된 12.0%를 나타냄
-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성장세 둔화로 전년 동기와 동일한 비중인 20.6%를 차지함
-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비중은 보험료 감소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2%p, 0.5%p 축소됨

〈그림 52〉 원수보험료 종목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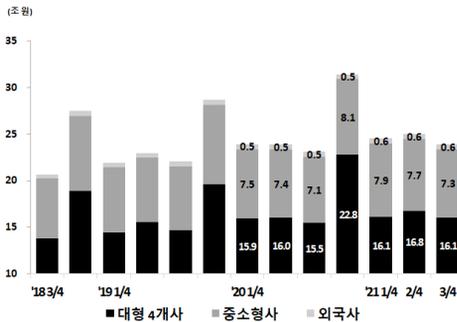


주: 전체 원수보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손해보험회사 유형별로 보면, 2021년 3/4분기 대형사의 전년 동기 대비 원수보험료 증가율이 3.9%로 가장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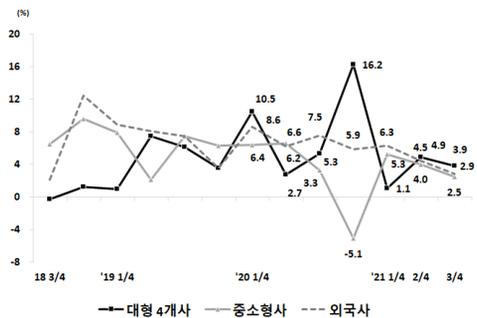
- 외국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9%, 중소형사의 원수보험료 증가율은 2.5%임

〈그림 53〉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4〉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원수보험료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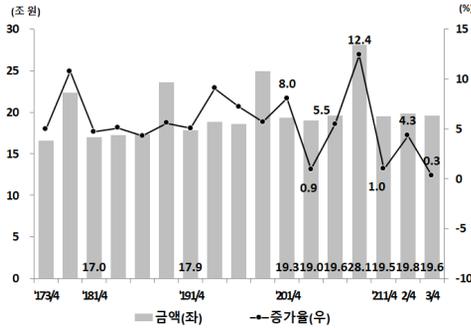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손해보험 발생손해액 및 사업비

###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의 발생손해액과 사업비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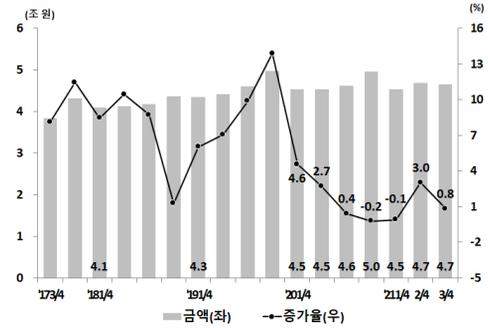
- 발생손해액은 코로나19 반사효과 등으로 0.3%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사업비도 판매경쟁 완화와 비대면 채널 확대 등으로 0.8% 증가에 그침

〈그림 55〉 발생손해액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6〉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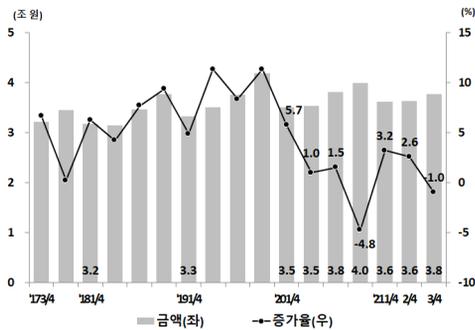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 2021년 3/4분기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과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는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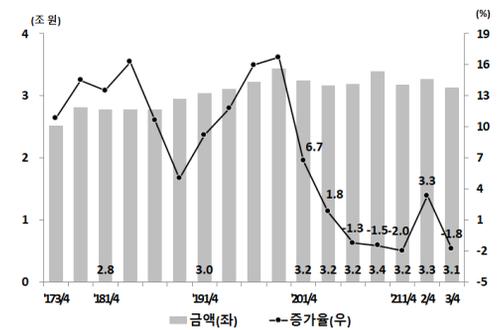
- 자동차보험 발생손해액은 2021년 들어 소폭 증가세를 나타냈으나 이번 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함
- 장기손해보험 사업비는 질병 및 상해보험 신규판매 둔화와 판매경쟁 완화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 감소함

〈그림 57〉 자동차 발생손해액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58〉 장기 사업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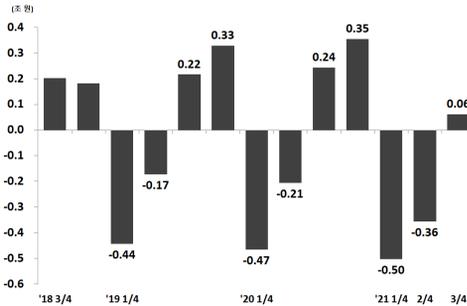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다) 재보험 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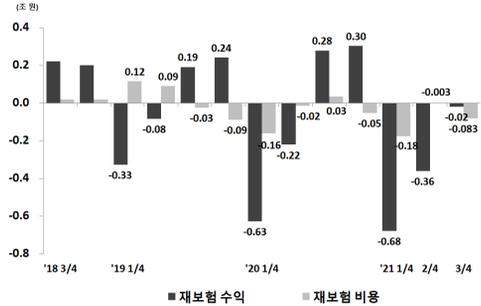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의 재보험 이익은 재보험 비용이 감소하여 0.06조 원 흑자를 기록함

〈그림 59〉 손해보험 재보험 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0〉 손해보험 재보험 수익 및 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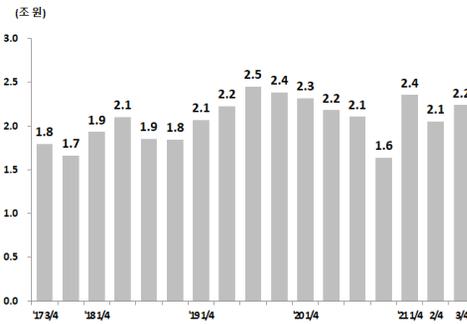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라) 손해보험 투자영업이익 및 영업이익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의 투자영업이익은 2.2조 원이었으며, 영업이익은 1.9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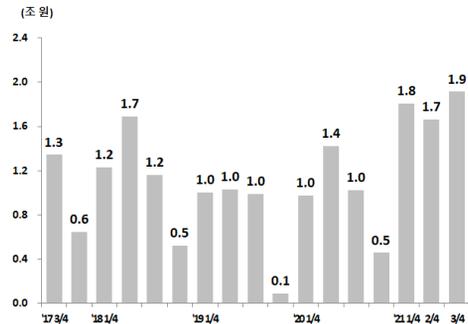
-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처분이익 축소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1조 원 증가에 그쳤으며, 영업이익은 손해율 개선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조 원 증가함

〈그림 61〉 투자영업이익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2〉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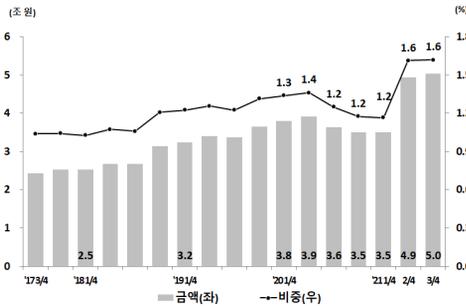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손해보험 후순위채 및 기타부채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의 총부채 가운데 후순위채와 기타부채<sup>27)</sup>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4%p, 0.3%p 확대된 1.6%, 6.3%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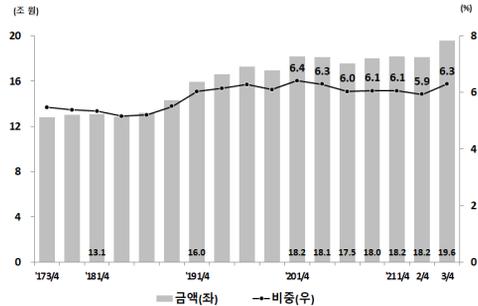
- 후순위채 규모는 전분기 일부 손해보험회사의 후순위채 발행<sup>28)</sup>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조 원 확대된 5.0조 원임
- 기타부채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1조 원 증가한 19.6조 원을 기록함

〈그림 63〉 후순위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4〉 기타부채



주: 비중은 총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7) 2021년 3/4분기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KB손해보험은 각각 4,990억 원, 3,790억 원, 3,500억 원 규모의 후순위채를 발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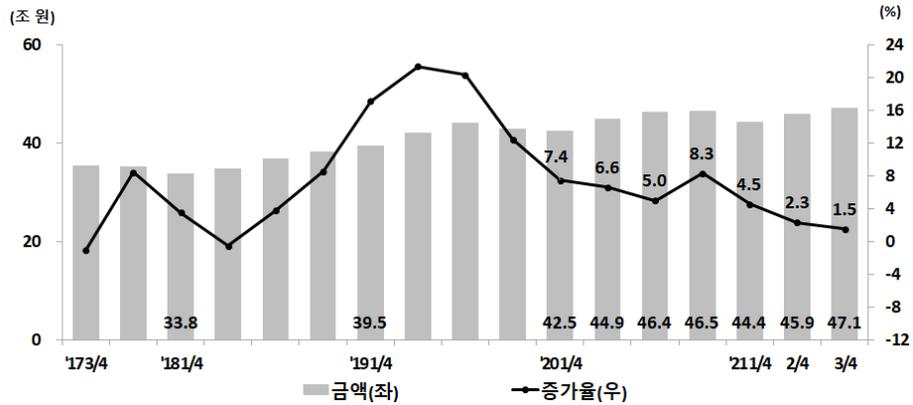
28) 기타부채는 총부채에서 책임준비금, 특별계정부채, 후순위채를 제외한 나머지 부채를 의미함

### 3) 손해보험 자본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 총자본은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한 47.1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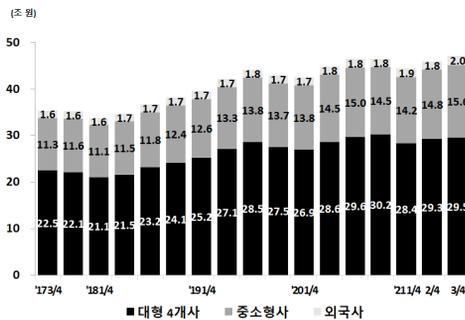
- 외국사와 중소형사의 총자본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3%, 4.3% 증가하였으나 대형사의 총자본은 0.3% 감소함

〈그림 65〉 손해보험 총자본 및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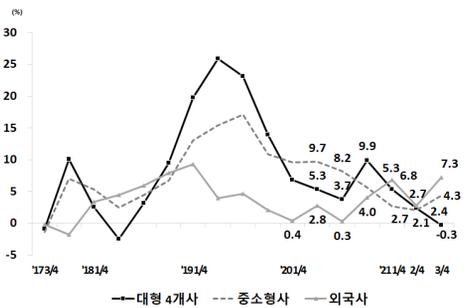
주: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7〉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자본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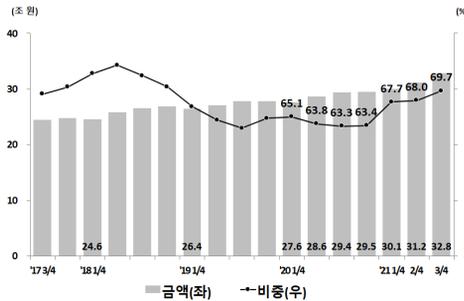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의 총자본 가운데 이익잉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당기순이익 증가로 69.7%까지 확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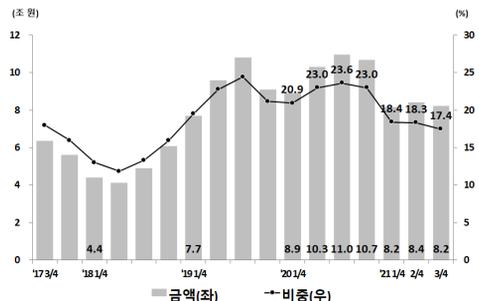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비중은 금리 상승으로 채권 평가이익이 감소하여 2021년 초 23.0%에서 17.4%까지 축소됨
- 신종자본증권과 기타자본 비중은 이익잉여금 비중이 확대되어 각각 2.5%, 10.3%로 축소됨

〈그림 68〉 이익잉여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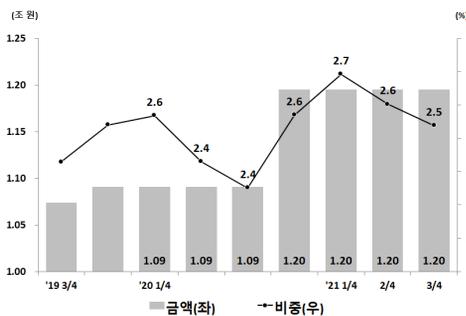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69〉 기타포괄손익누계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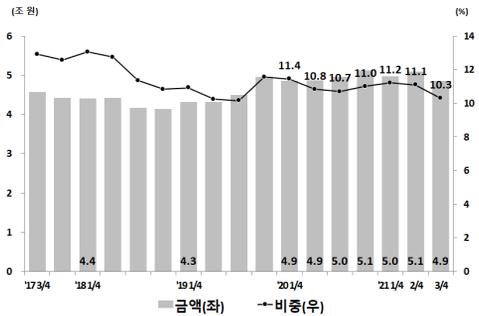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0〉 신종자본증권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1〉 기타자본



주: 비중은 총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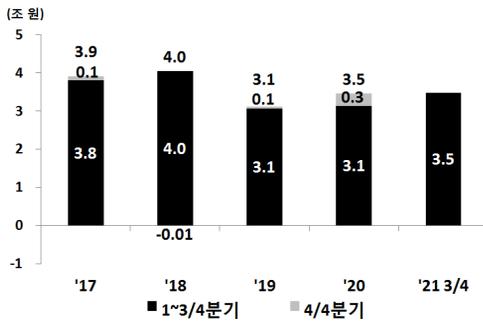
## 2. 수익성

### 가. 당기순이익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3.5조 원을, 손해보험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2.6% 증가한 3.9조 원을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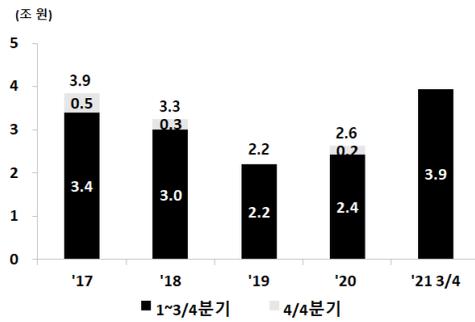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은 전년도 채권 매각으로 이자수익과 금융자산처분이익이 축소되어 악화되었으나 보험영업이익은 금리 및 주가 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전입액 감소 등으로 개선됨
- 손해보험의 경우 투자영업이익이 금융자산처분이익 축소 등으로 감소하였으나 보험영업이익은 코로나19 반사효과 및 고액사고 감소에 따른 손해율 하락으로 크게 개선됨
- 다만, 누적 당기순이익 증가에는 특별배당금 수령으로 인한 배당수익 확대 효과가 포함되어 있음

〈그림 7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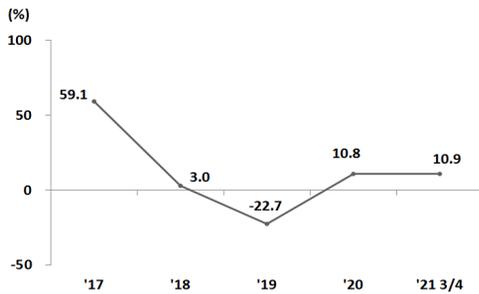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3〉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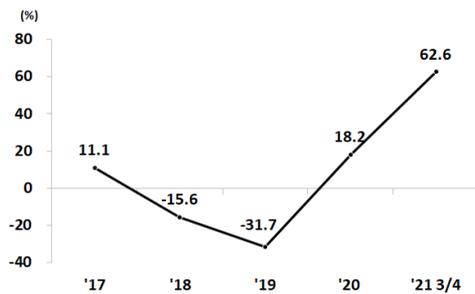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4〉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75〉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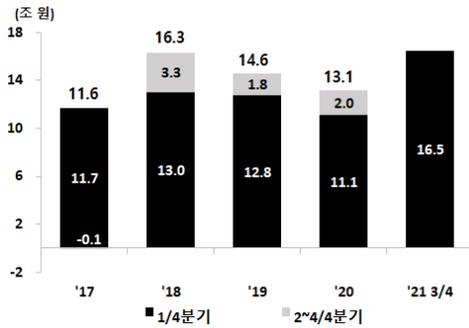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021년 3/4분기 은행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8.5% 증가한 16.5조 원을, 증권산업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71.1% 증가한 7.7조 원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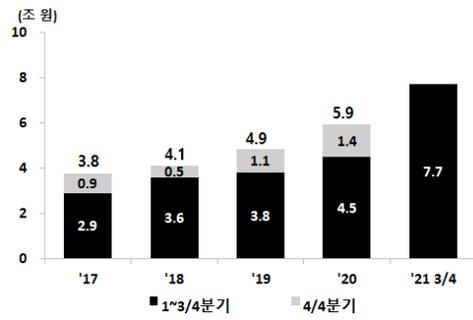
- 은행산업은 대출자산 증가로 인한 이자수의 확대가, 증권산업은 파생상품 및 주식 관련 손익 증가가 당기순이익 확대의 주요한 원인임

〈그림 76〉 은행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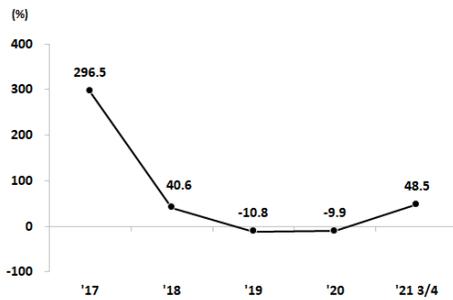
주: 국내은행은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로 구성됨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7〉 증권 당기순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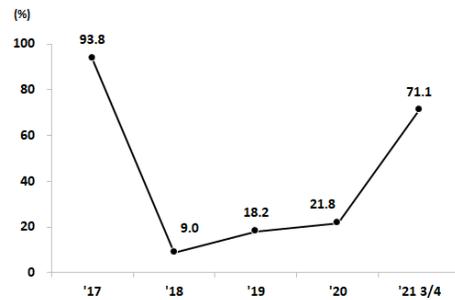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8〉 은행 당기순이익 증가율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79〉 증권 당기순이익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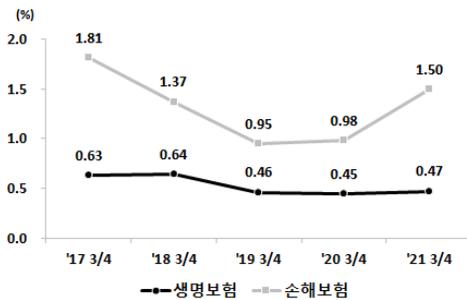
주: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임  
자료: 금융감독원

## 나. ROA, ROE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과 손해보험산업의 ROA와 ROE는 모두 당기순이익 확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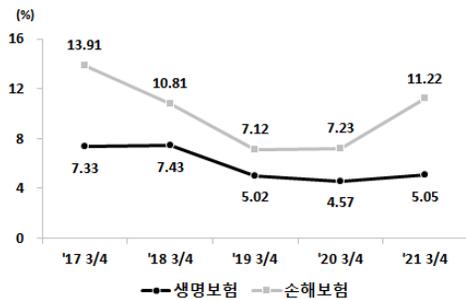
- 생명보험산업 ROA는 0.47%로 전년 동기 대비 0.02%p 상승하였으며, 손해보험산업 ROA는 1.50%로 전년 동기 대비 0.52%p 상승함
- 생명보험산업 ROE는 전년 동기 대비 0.48%p 상승한 5.05%를, 손해보험산업의 ROE는 전년 동기 대비 3.99%p 상승한 11.22%를 나타냄

〈그림 80〉 보험산업 ROA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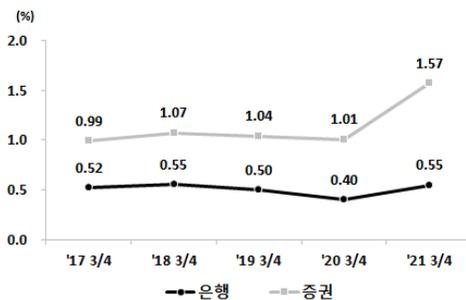
〈그림 81〉 보험산업 ROE



자료: 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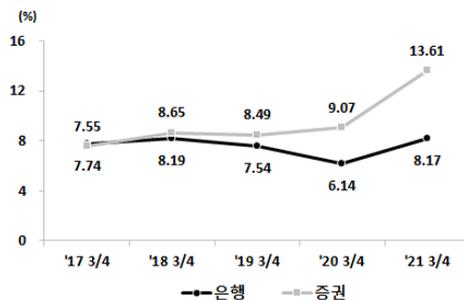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은행 및 증권산업의 ROA와 ROE는 당기순이익이 확대됨에 따라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함

〈그림 82〉 은행 및 증권산업 ROA



자료: 금융감독원

〈그림 83〉 은행 및 증권산업 ROE



자료: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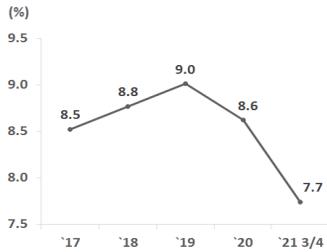
## 다. 보험영업이익 관련 지표

### 1) 생명보험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해지율<sup>29)</sup>은 2020년 말 대비 감소하였으나, 사업비율과 보험금 지급률<sup>30)</sup>은 2020년 말 대비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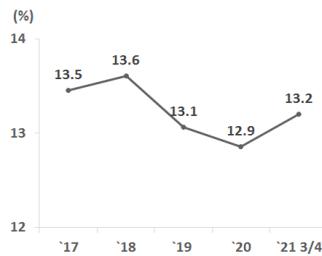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해지율은 효력상실 및 해약 감소로 7.7%를 나타냈으며, 특히 대형사 해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음
- 사업비율은 2020년 말 대비 0.3%p 상승한 13.2%를 기록하였으며, 중소형사의 사업비율은 보장성보험 판매 축소로 감소한 반면 대형사와 외국사의 사업비율은 증가함
- 보험금 지급률은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면서 2021년 3/4분기 88.9%까지 상승하였으며, 중소형사의 보험금 지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음

〈그림 84〉 생명보험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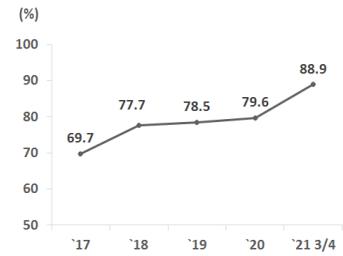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5〉 생명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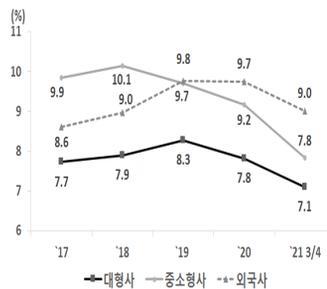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6〉 생명보험 보험금 지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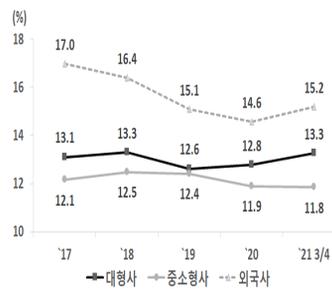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7〉 회사 유형별 해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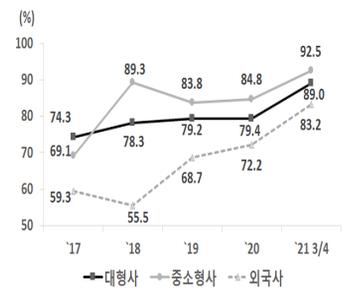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8〉 회사 유형별 사업비율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89〉 회사 유형별 보험금 지급률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29) 해지율 = (효력상실액 + 해지역) / (연초보유계약액 + 신계약액)으로 계산하며, 2021년 2/4분기는 연율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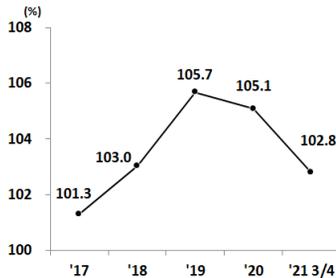
30) 사업비율 = 사업비 / 수입보험료, 보험금 지급률 = 지급보험금 / 수입보험료

## 2) 손해보험

○ 2021년 상반기 손해보험산업 합산비율은 손해율 개선으로 전년 말 대비 2.3%p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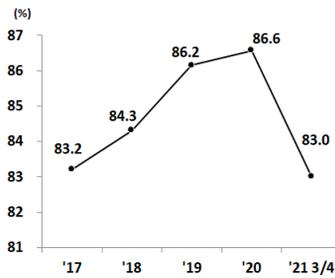
- 손해보험산업 손해율은 전년 말 대비 3.6%p 하락한 83.0%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일반손해보험 손해율도 고액사고 감소로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임
- 사업비율의 경우 사업비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질병 및 상해보험 신규판매 축소로 보유보험료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전년 말 대비 1.3%p 상승한 19.8%를 나타냄

〈그림 90〉 손해보험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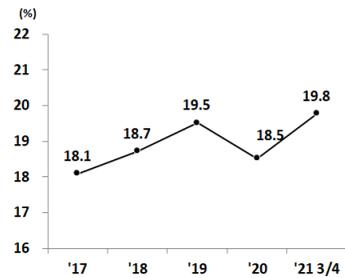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1〉 손해보험 손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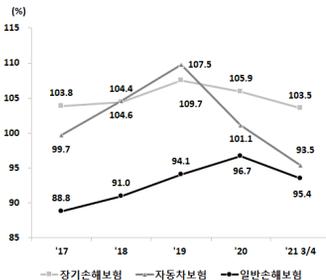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2〉 손해보험 사업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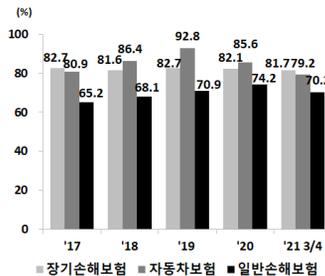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3〉 손해보험 종목별 합산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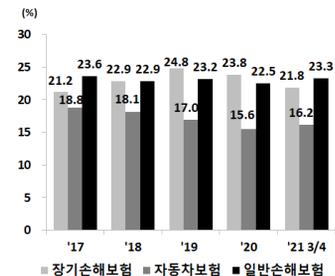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4〉 손해보험 종목별 손해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5〉 손해보험 종목별 사업비율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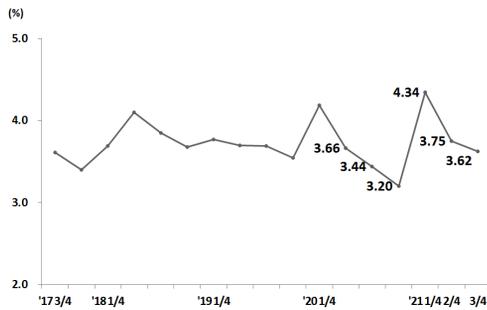
## 라. 투자영업이익 관련 지표

### 1) 운용자산이익률

○ 2021년 3/4분기 보험산업 운용자산이익률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모두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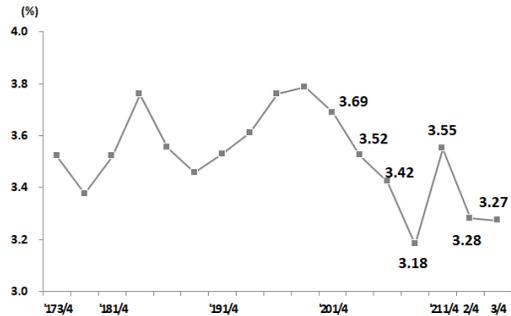
-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은 전분기 대비 0.13% 하락한 3.62%를 기록하였으며, 연 초 배당수익 확대 로 상승한 이후 하락하고 있음
-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도 채권 매각에 따른 이자수익 감소 등으로 전분기 대비 0.01%p 하락한 3.27% 를 나타냄

〈그림 96〉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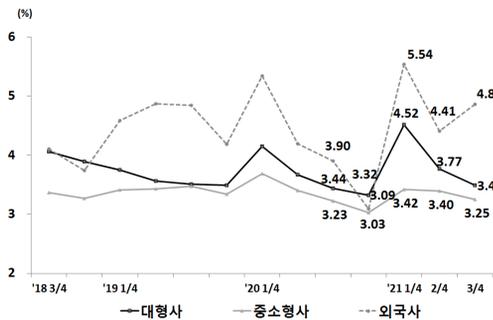
〈그림 97〉 손해보험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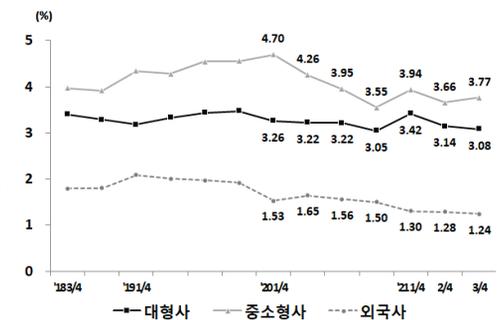
○ 생명보험의 경우 대형사 운용자산이익률 하락이 두드러졌으며, 손해보험의 경우 외국사 운용자산이 이익률이 2020년 2/4분기 이후부터 하락하고 있음

〈그림 98〉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99〉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운용자산이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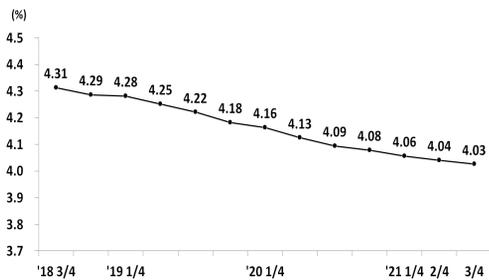
주: 운용자산이익률 = 운용자산손익 / 기중운용자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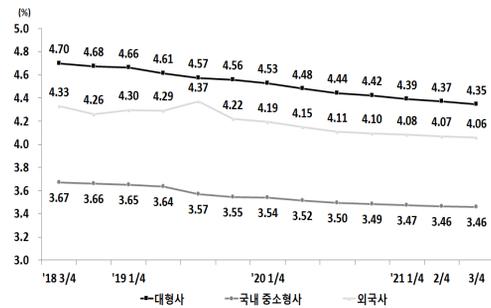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4.03%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생명보험 운용자산이익률 3.62%보다 0.41%p 높은 수준임
- 회사 그룹별로 보면 대형사, 중소형사, 외국사의 보험료 적립금 평균 금리는 각각 4.35%, 3.46%, 4.06%로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중소형사가 다른 그룹에 비하여 낮음

〈그림 100〉 생명보험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그림 101〉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주: 평균 금리 = (적용 금리수준의 보험료 적립금 × 적용 금리수준의 중간 값) / 총보험료 적립금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마. 이익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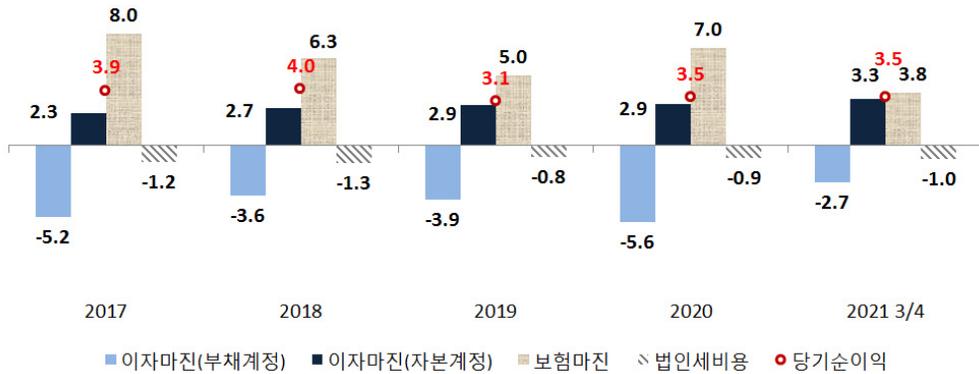
### 1)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산업의 이자마진과 보험마진은 각각 0.6조 원, 3.8조 원이었으며, 전체 당기순이익은 3.5조 원 흑자를 기록함

- 자본계정 이자마진은 3.3조 원을 기록하였고, 부채계정 이자마진은 보험부채 적립이율이 운용자산이익률보다 높아 -2.7조 원을 기록함
- 보험마진은 보증준비금 적립 감소, 사업비 감소 등으로 3.8조 원을 나타냄

〈그림 102〉 생명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주: 1) 이자마진(부채계정) = 책임준비금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 보험료 적립금의 평균 금리)

2) 이자마진(자본계정) = 자본 평균 잔액 × 자산운용이익률

3) 보험마진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이자마진(부채계정) - 이자마진(자본계정)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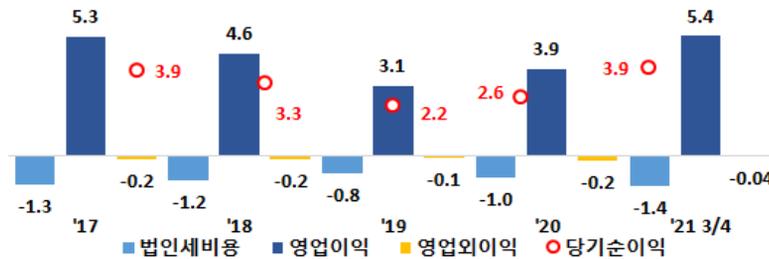
## 2) 손해보험

### 가) 당기순이익 구성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당기순이익은 손해를 하락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으로 3.9조 원 흑자를 기록하였고, 영업이익은 5.4조 원 흑자, 영업외이익은 0.04조 원 적자를 기록함

〈그림 103〉 손해보험 당기순이익 구성

(단위: 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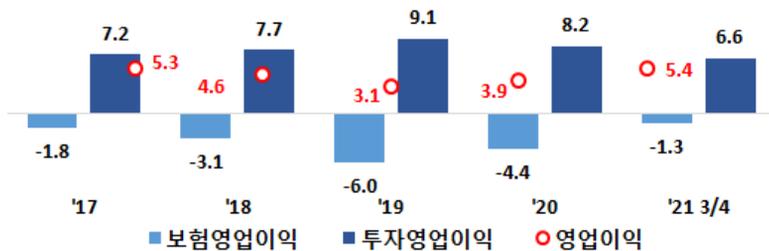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영업이익 구성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영업이익은 5.4조 원 흑자를 나타냈으며, 보험영업에서는 1.3조 원 적자를, 투자영업에서는 6.6조 원 흑자를 기록함
- 보험영업이익은 자동차보험 및 일반손해보험 손해율 개선과 고액사고의 기저효과<sup>31)</sup> 등으로 전년 동기 보다 적자폭이 크게 축소됨
- 투자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에 그쳤으며, 이는 금융자산 처분으로 이자수익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임

〈그림 104〉 손해보험 영업이익 구성

(단위: 조 원)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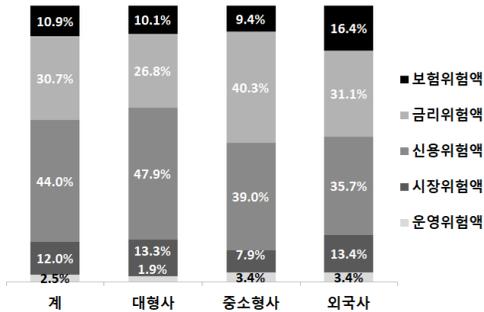
31) 전년도 롯데케미칼 폭발 사고와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확대에 따른 기저효과를 의미함

### 3. 리스크

#### 가.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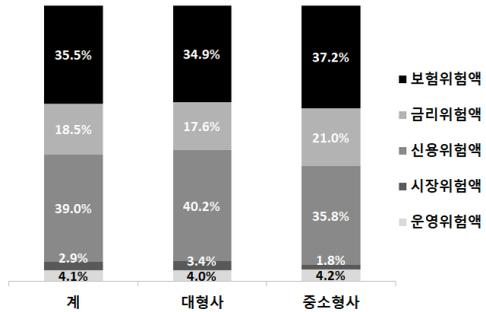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산업 모두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생명보험의 경우 금리위험이 손해보험의 경우 보험위험이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생명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와 외국사는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각각 47.9%, 35.7%로 가장 높은 반면, 중소형사는 금리위험액 비중이 40.3%로 높게 나타남
  - 손해보험회사의 경우 대형사는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액 비중이 40.2%로 높게 나타났으며, 중소형사는 보험위험액 비중이 37.2%로 높게 나타남

〈그림 105〉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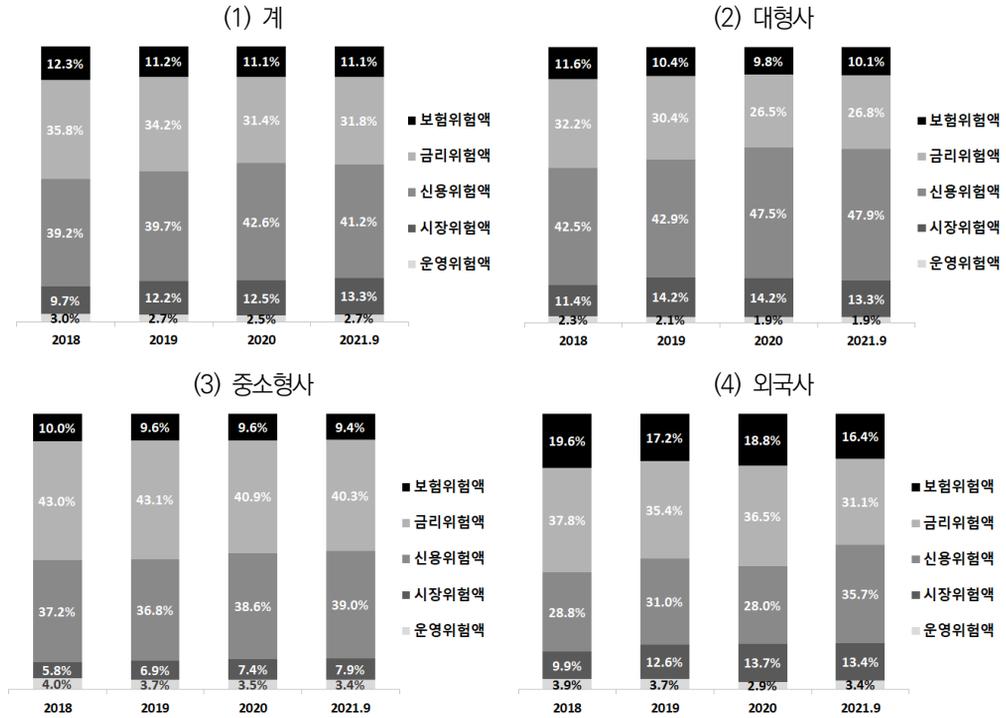
〈그림 106〉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말 대비 1.4%p 감소한 반면, 나머지 보유 위험은 소폭 상승함
  - 대형사의 경우 보유 위험 중 시장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말 대비 0.9%p 감소한 반면, 보험위험과 금리위험, 신용위험은 각각 0.3%p, 0.3%p, 0.4%p 증가함
  - 중소형사의 신용위험과 시장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전년 말 대비 0.4%p, 0.5%p 증가하였고, 보험위험과 금리위험,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0.2%p, 0.6%p, 0.1%p 감소함
  - 한편, 외국사의 경우 보유 위험 중 신용위험과 운영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7%p, 0.5%p 증가하였고, 보험위험과 금리위험, 신용위험 보유 위험 비중은 각각 2.4%p, 5.4%p, 0.3%p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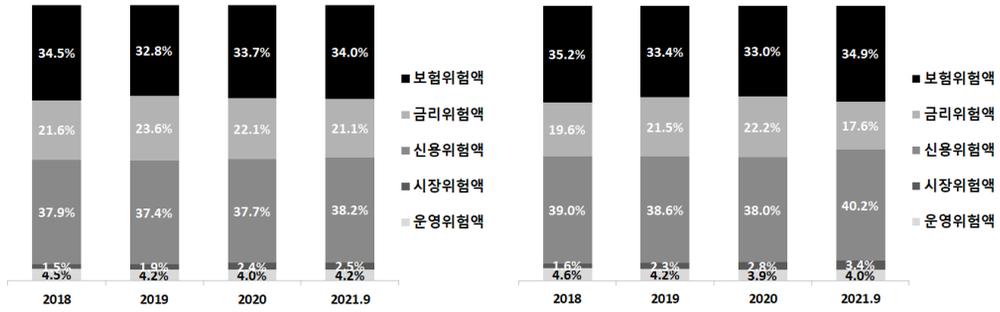
〈그림 107〉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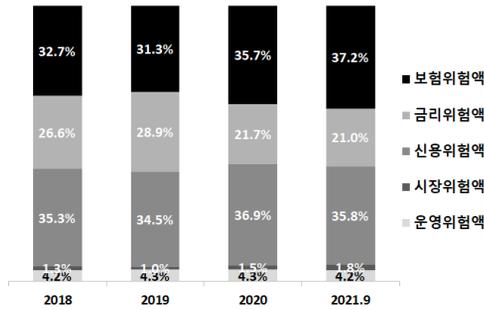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회사의 보유 위험 중 금리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 말 대비 1.0%p 감소하였으며, 나머지 보유 위험 비중은 소폭 상승함
  - 대형사의 경우 보유 위험 중 금리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말 대비 4.6%p 감소한 반면, 중소형사의 경우 신용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1.1%p 감소함
  - 대형사의 경우 금리위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유 위험 비중이 전년 말 대비 상승하였고 중소형사의 경우 보험위험과 시장위험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전년 말 대비 1.5%p, 0.3%p 증가함

〈그림 108〉 손해보험회사 유형별 보유 위험 추이  
 (1) 계 (2) 대형사



(3) 중소형사



주: 위에서부터 보험위험액, 금리위험액 순임  
 자료: 경영공시

## 4. 시장경쟁

### 가.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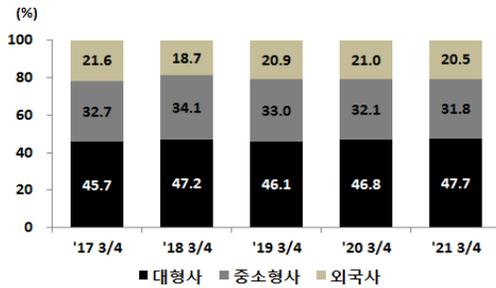
#### 1) 생명보험 시장점유율

- 2021년 3/4분기 그룹별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중소형사와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됨
  - 대형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연금보험 확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0.9%p 증가한 47.7%를 나타냄
  - 중소형와 외국사의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은 31.8%, 20.5%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3%p, 0.5%p 감소함
  
-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1년 3/4분기 중소형사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된 반면 대형사 및 외국사의 시장점유율은 축소됨
  - 중소형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43.5%로 전년 동기 대비 4.1%p 확대되었으며, 이는 일부 중소형사의 변액보험 신규 판매가 확대되었기 때문임
  - 대형사와 외국사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37.6%, 18.9%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0.6%p, 3.5%p 감소하였으며, 저축보험 신규 판매 감소에 따른 외국사 초회보험료 점유율 축소가 두드러짐
  
- 2021년 3/4분기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sup>32)</sup>는 전년 동기 대비 228 상승한 1,203,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03 상승한 1,373임
  -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및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일부 중소형사의 합병 및 변액보험 판매 확대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승함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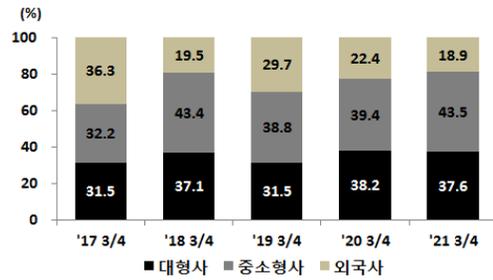
32) 허핀달 지수는 각 사 시장점유율 제곱 값을 합한 수치로 시장집중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지수가 1,800 이상인 경우 시장이 상당히 집중되어 시장경쟁이 제한적이라고 판단함

〈그림 109〉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수입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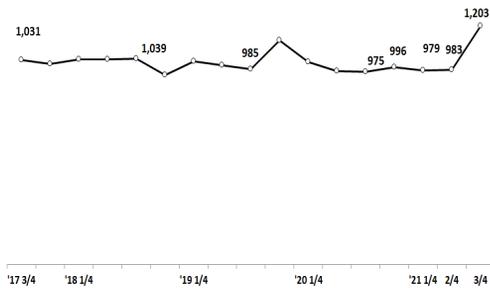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0〉 생명보험회사 유형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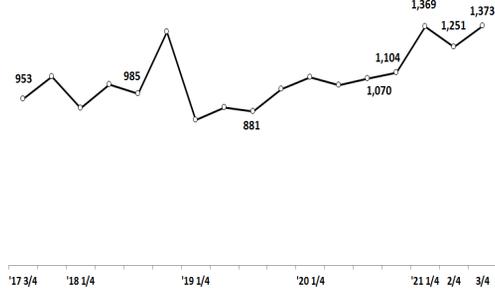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1〉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2〉 생명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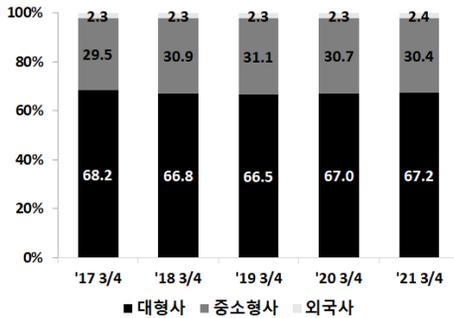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2) 손해보험 시장점유율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산업 그룹별 원수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소폭 확대되었으며,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축소됨
  - 대형사의 원수보험료 기준 시장점유율은 2020년 3/4분기 67.0%에서 2021년 3/4분기 67.2%로 확대되었고, 중소형사의 시장점유율은 30.7%에서 30.4%로 축소됨
- 장기손해보험의 그룹별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의 경우, 2021년 3/4분기 대형사의 시장점유율이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됨
  - 2021년 3/4분기 대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시장점유율은 68.8%로, 전년 동기 대비 25.2%p 확대됨
  - 같은 기간 중소형사의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점유율은 30.0%로 전년 동기 대비 27.7%p 축소되었으며, 외국사 점유율은 2.4%로 전년 동기와 유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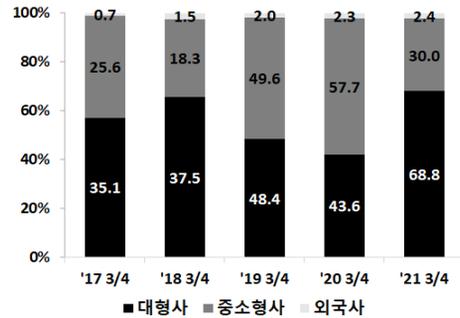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366으로 전년 동기 대비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 지수는 1,907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8 상승함

〈그림 113〉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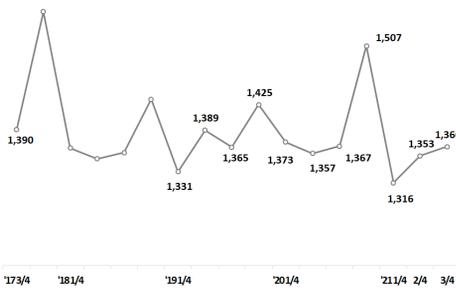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4〉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그룹별 시장점유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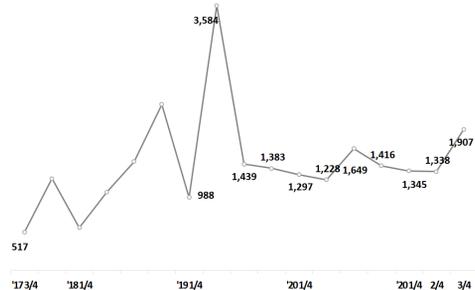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5〉 손해보험 원수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6〉 장기손해보험 초회보험료 기준 허핀달지수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나. 판매채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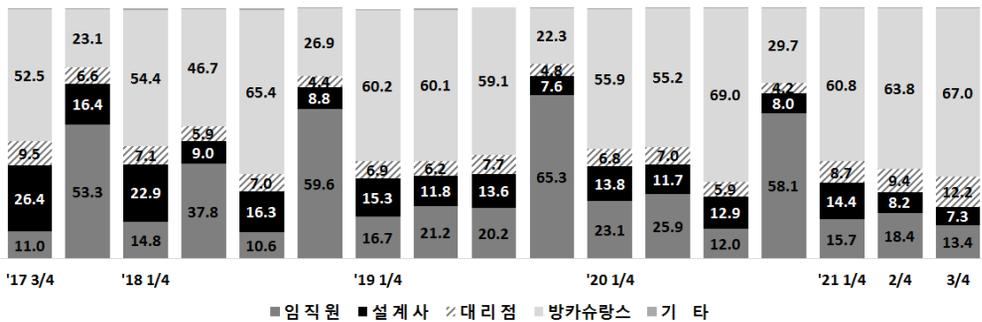
### 1) 생명보험 판매채널

○ 2021년 3/4분기 대리점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확대된 반면 방카슈랑스 채널 및 설계사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감소함<sup>33)</sup>

- 대리점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변액보험 판매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6.3%p 증가한 12.2%임
- 방카슈랑스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저축보험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2.0%p 감소한 67.0%, 설계사 채널의 초회보험료 비중은 보장성보험 판매 감소로 전년 동기 대비 5.6%p 감소한 7.3%를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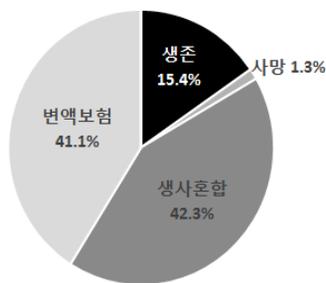
〈그림 117〉 생명보험 판매채널별 초회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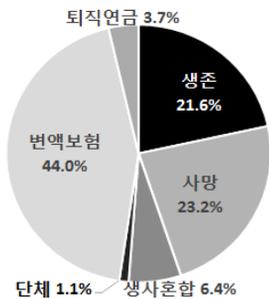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8〉 방카슈랑스 채널 종목별 비중 (2021년 3/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19〉 설계사 채널 종목별 초회보험료 비중 (2021년 3/4분기)



자료: 생명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33) 보험회사의 비대면 채널 실적은 임직원 채널 실적에 포함되며, 대리점 채널의 경우도 비대면 채널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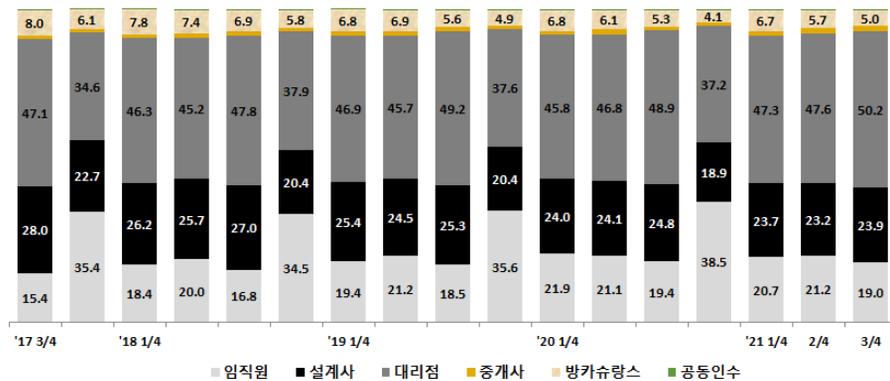
## 2) 손해보험 판매채널

○ 2021년 3/4분기 손해보험 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의 경우 대리점 채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확대된 반면, 설계사 채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축소됨

- 대리점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50.2%로 전년 동기 대비 1.3%p 증가한 반면, 설계사 채널의 원수보험료 비중은 23.9%로 전년 동기 대비 0.9%p 감소함
- 한편, 임직원과 방카슈랑스 채널 비중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0.4%p, 0.3%p 감소한 19.0%, 5.0%p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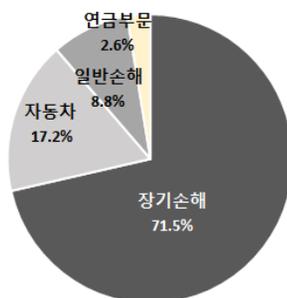
〈그림 120〉 손해보험 판매채널별 원수보험료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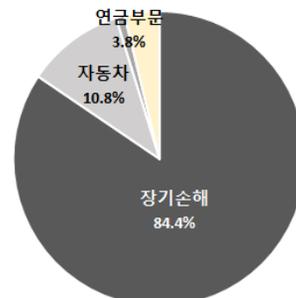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1〉 대리점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2021년 3/4분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그림 122〉 설계사 채널 종목별 원수보험료 비중(2021년 3/4분기)



자료: 손해보험회사, 『업무보고서』, 각 월호

## 도서회원 가입안내

회원	연회비	제공자료
법인 회원	₩30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보고서</li> <li>- 기타보고서</li> <li>- 연속간행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험금융연구</li> <li>· 보험동향</li> <li>· 해외 보험동향</li> <li>· KOREA INSURANCE INDUSTRY</li> </ul> </li> </ul>
특별 회원	₩150,000원	
개인 회원	₩150,000원	

영문 연차보고서  
추가 제공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 가입 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3775-9113 | 팩스 : (02)3775-9102



### 회비 납입 방법

무통장입금

- 계좌번호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 예금주: 보험연구원



### 자료 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02-3775-9113 | lsy@kiri.or.kr)



보험동향 100호 [ 2021년 겨울호 ]

발행일 2022년 3월  
발행인 안철경  
발행처 보험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화재보험협회빌딩  
문의 보험연구원 동향분석실(02-3775-9091)  
인쇄소 경성문화사

ISSN 1228-310X

정가 10,000원

